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뉴스잡지 126호





우리의 타고난 사랑을 발휘하라

칭하이 무상사 / 1999. 5. 22. 이탈리아 로마 (원문 영어)

전쟁과 분쟁, 오해, 분노, 증오는 모두 신을 알 수 없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인류가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악행들은 신을 알고자 하는 갈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역설적이고 모순적으로 들리지만 이런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외 달리 어찌해야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은 도움을 청하는 필사적인 외침이며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소리치듯이 그들은 폭력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인간의 몸을 입어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사실 신의 자녀이며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천국에서 언제든지 원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신의 성전임을 알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라는 말은 우리 내면이 다름 아닌 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신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위해 노력을 들여야 하는 상황에, 그리고 요청해야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심지어 요청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받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좌절감은 폭력을 유발하고 증오심을 부추켜 결국에는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사실 사랑과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절망감에 너무나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과 지혜, 이해를 전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중환자는 환자도 알아보지 못할 뿐더러 의사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갖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절망 상태에 빠지기 전에 자신을 잘 돌보고 신의 사랑을 찾아 그에 실질적으로 더 근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무력함이나 깊은 절망의 밑바닥을 체험하지 않아도 되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신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심지어 예수 당신에게 어떤 짓을 해도 우리 모두

를 용서합니다. 예수는 원수를 용서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다.” 나는 예수에 대한 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 위대한 사랑은 신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 사랑이 어찌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단지 그 사랑을 발휘하지 않고 그 방법을 잊어버린 것뿐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지만, 아직은 예수처럼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수는 있지요. 신은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합니다. 예수도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신의 눈에는 우리는 항상 동등합니다.

그렇다면 왜 신을 알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이 사랑을 발휘해야만 할까요? 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 사랑을 발휘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 주위 환경, 때로는 온 국가에까지 고통을 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결정, 사랑이 결핍된 결정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단지 신을 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하신 예수의 말처럼 우리가 신의 일부이며 신과 하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사랑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말이나 생각, 바램만으로는 신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신과 하나가 되어 지상의 신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금 그 바다에 합류해 사랑의 바다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지구에서 신의 대표가 될 것이며, 위대한 신의 모든 품성과 모든 사랑, 자비를 대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기쁨, 자비로움, 행복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앞표지 안 / 스승님 말씀

우리의 타고난 사랑을 발휘하라

2 / 12 사랑의 실천

미국 9.11재난 구조활동 보고서 || 태풍 속에 피어난 사랑의 관심

11 매체 보도

미국 뉴욕 세계일보 || 포모사 대만일보 || 포모사 민중일보

15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비디오 테이프 || MP3 || DVD

16 사제지간의 편지

제 인생에 들어오신 스승님께 감사 드리며

18 수행일화

다죽류로부터 얻은 영감

20 스승님의 농담

발레리나는 너무 힘들어! || 이상한 논리 || 기우(奇遇)

21 스승님의 추천 영화

21 전 세계 채식식당

스페인 || 멕시코

22 스승의 날 특집

관음법문은 가장 완벽한 교육 시스템이다

28 수행과 생활

즐거운 작은 천사

30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돌에서 성인이 되기까지

36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릴 때부터 도덕적 기초를 세우라 || 수행하는 가정, 성인이 되는 개인

23 / 24 / 26 / 41 지혜어록

적과 화해하라 ||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최고의 스승은 내면에 존재한다 || 명상은 일종의 교육이다 || 초월 학교

19 / 29 감로법어

35 생활의 지혜

설사 치료법 || 개미 제거법 || 천연 방충법

42 골라 뽑은 수행문답

교육문화의 질을 높이자 || 최고의 대학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44 이야기 세상

가피물 잡기를 통한 깨달음

46 다채로운 이벤트

유럽 || 남아프리카 || 미국 || 아르헨티나 || 홍콩 || 포모사

51 관음 웹사이트

52 전 세계 연락처

뒷표지 / 무상 예술

해피요기 세상 || 최신 만세등 - '5세계'
진선미가 시후의 한자리에 화현하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26호

출판일자 : 2002. 2. 17.

설립연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2202-809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unitel.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 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9.11 재난 구조 활동 보고서

“인류가 보다 평화로운 방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깊은 사랑과 애도를 보내며……” 이것은 2001년 9월 11일 미국을 강타한 재난을 접하고 깊은 비탄을 느끼신 사랑과 자비의 영적 스승, 청하이 무상사의 간절한 염원이다.



스승님의 메시지를 받은 즉시 뉴욕 인근 지역 동수들이 재난구조 센터를 조직하고 재난현장에 투입해 구조작업을 돕다



재난 현장의 구조작업자들은 동수들이 준비한 중국음식을 매우 환영했다. 그들은 지난 며칠 동안 먹어본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말했다



동수들이 폭발지점 부근에 사랑의 부스를 설치하고 하루 종일 고생하는 구조작업자들에게 식사와 뜨거운 음료를 제공한다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WTC)와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미 국방성 건물(펜타곤)이 납치된 비행기들의 공격을 받고 펜실베이니아에서도 또 다른 비행기

가 폭파되었다. 이 재난은 전 세계에 놀라움과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던져주었다. 이 불행한 사건들을 접하신 스승님은 즉시 재난 지역의 인근 센터들에 전화를 걸어 동수들에게 신속히 구조팀을 조직할 것을 지시하셨다. 온화하면서도 염려가 담긴 스승님의 목소리는 미국 동부의 모든 동수들을 일깨우셨고, 스승님은 동부의 각 센터로 긴급 전화를 걸어 충격에 빠진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감동시켰으며 하나로 결집시키셨다. 그 결과 구조작업은 순조롭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

스승님은 또한 전 세계 센터에 당신의 슬픔을 전하고 모든 동수들의 사랑과 관심을 촉구하셨다. “물질적인 도움과는 별도로 각 센터들은 함께 명상하며 인류가 보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스승님의 지시를 받은 즉시, 재해지역 주변 센터들은 즉시 구조활동에 착수하였는데, 병원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헌혈과 모금활동, 재난 현장의 구조대원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통신용 휴대전화 제공 등 다양한 활동들을 시작했다. 동수들은 모금활동을 하는 한편 세계에 긍정적인 힘과 평화를 가져오고 인류간의 이해를 촉진하여 다시는 이런 폭력 사태가 재발하지 않길 희망하며 명상 기도 모임을 열기도 했다. 한편 희생자들의 물질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많은 센터들이 모금을 시작하자 포모사 전역의 동수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전 세계를 경악시킨 대형 재난의 최전방인 뉴욕과 버지니아 센터는 스승님의 지시를 받고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보스턴, 휴스턴, 켄터키, 등 부근 센터들과 함께 신속히 구조센터를 조직했다.

미국 9.11재난 구조활동을 촉구하는 스승님의 메시지

2001. 9. 11.

나는 이미 워싱턴과 뉴욕 주변의 센터들에 전화를 걸어 긴급 구조대를 조직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헌혈 활동, 통신용 휴대전화 공급 등 가능한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펜타곤의 고통받는 재해민들을 돕는 과정에서 각 센터들은 본부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도록 하십시오. 뉴욕은 연락하기 어렵습니다.

물질적인 도움과는 별도로 각 센터들은 함께 명상하며 인류가 보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구조활동 과정을 보고해 주십시오.

깊은 사랑과 슬픔을 나누며
칭하이

다음은 9.11재난 관련 구조활동에 관한 각 센터들의 보도들이다. (구조활동은 전 세계에서 계속 진행 중이며, 이후 집지에 보고될 예정이다)

미국 뉴욕

뉴욕 센터는 팀을 나누어 병원을 방문하고 현장의 자원봉사자들에 게 음식을 전달했다.

1) 병원 방문팀 : 자원 입문자들은 옷과 양말, 선물 및 기타 물자들을 준비해 이스라엘 병원과 벨뷰 병원, 뉴욕 대학병원, 성 빈센트 병원에 전달했다.

구조활동 중 부상당한 자원봉사자들과 소방수들은 우리의 방문에 매우 감사하고 즐거워했다. 한 소방수는 우리에게 직접 감사를 전하기 위해 산소 마스크를 제거해달라고 가족들에게 특별히 주문하기도 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다. 우리 역시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손을 잡고 말을 걸며 위로하고 그들의 이야기도 귀를 기울였다.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해 위대한 사랑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다.

2) 음식 보급팀 : 많은 장애를 뚫고 재난 현장에 접근했을 때는 이미 재난 발생 후 24시간이 흐른 뒤였다. 그때 큰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바깥은 연기는 잦아들었지만 잔해 속에서는 아직도 불길이 있어서 사망에 연기가 가득했다. 건물 내부에서 온갖 것들이 뒤섞여 타면서 나는 냄새가 지독했고 그 주변은 1인치 정도 되는 재로 뒤덮여 있었다.

우리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유니폼인 노란 조끼를 입고 WTC 붕괴 현장 부근에 두 개의 부스를 별도로 가설한 후 ‘칭하이 무상사 구조팀’이란 현수막을 내걸었다. 수백 개의 채식 도시락과 샌드위치, 과일, 뜨거운 커피 및 음료를 함께 준비했는데 현장의 음식물 수요량은 날이 갈수록 증가했다. 우리는 밤낮으로 일하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은 우리의 중국 음식에 매우 감탄하면서 지난 며칠 동안 맛본 음식 중 가장 맛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음식물 운반차량을 재난 현장 주위로 몰아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 지역은 붕괴 직전의 건물들 때문에 음식물 반입이 불가능했었다. 그래서 우



뉴욕 적십자사의 미셸 멀리아 하우웰 여사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로부터 성금을 전달받고 동수들과 기념촬영을 하다



뉴욕 구세군 사령관 칼 L. 쇼크 소령은 희생자들에 대한 스승님의 관심을 알고는 기쁨과 놀라움 속에 우리 성금을 접수했다



동수들이 뺨에 음식을 싣고 재난 현장 주변을 순회하며 자원봉사자들에게 음식과 음료를 전달하다



음식과 음료 공급소이자 사실상의 무료 식품점이자 약국인 우리 부스

리는 농담으로 우리 운반차량을 ‘칭하이 이동 식당’이라고 부르곤 했다.

우리 부스들은 음식과 음료 공급처이면서 무료 식품점, 약국이기도 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고 친절할 태도로 최상의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왔다. 어떤 이들은 우리 단체에 관해 자세히 묻기도 하면서 동수들과 영적인 주제를 놓고 토론하기도

했다. 특히 주 방위군과 경찰관들은 우리 단체에 매우 호의적이었다. 그들은 원래 전문 작업자들도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곤 했는데 우리가 조를 교대할 때는 입문증을 보여주고 내부의 우리 일행 중 한 사람만 우리를 데리러 나오면 바로 통과할 수 있었다. 그들은 우리의 일하는 모습을 주시하면서 우리 단체의 헌신적인 정신에 큰 감동을 받았다.

봉괴현장에서 우리는 대규모 지원단체인 셈이었는데, 게다가 많은 동양인들로 구성되어 노란 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 TV인 채널 27의 관심을 끌게 되어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그들은 우리가 왜 아침부터 하루종일 이처럼 열심히 일하는지 궁금해했고 우리는 칭하이 무상사로부터 우리 모두가 한 형제자매로서 인종이나 종교의 분별을 넘어 서로 도와야 함을 배웠다고 대답했다.

3) 금전적 기부 : 위에 언급된 구조 활동 외에도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미국 적십자사와 구세군, 뉴욕의 소방수 유족 기금에 총 미화 17만 불을 전신환 송금 및 수표로 기부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희생자들을 돕는 동일한 이상으로 기부했기 때문에 이 기부금은 단체들 간의 형제애와 협력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구세군의 쇼크 소령은 우리 스승님이 희생자들에 대해 매우 염려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놀라움과 함께 기쁨을 표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펜실베이니아 동수들은 뉴욕 시와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재난이 발생한 당일 저녁 단체 기도 명상 시간을 가졌다.

뉴욕 시로 진입하는 도로가 봉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필라델피아 구세

군과 미 적십자사까지 걸어서 도착해야 했다. 두 단체들은 그들이 현재 뉴욕 재난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가 도와준다면 뉴욕 구조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구세군에 미화 5천 불을 현금으로 기부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구세군의 P. 데산티스 여사는 어려운 때 자원 봉사하는 우리 단체를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미국 버지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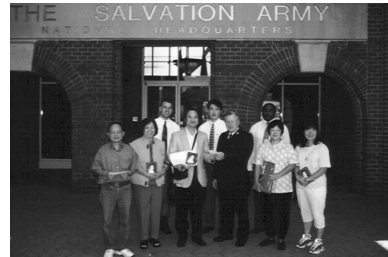
2001년 9월 11일 버지니아 동수들은 2대의 비행기가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을 폭파시켰다는 소식을 들었다. 잠시 후 버지니아 주 알링턴 시에 소재한 펜타곤이 또 다른 비행기의 공격을 받고 불길에 휩싸였고, 우리는 대다수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충격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곧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우리 협회 본부는 곧장 구조 활동을 시작하라는 스승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스승님은 우리에게 재난지역에 직접 진입해 희생자들을 도우라고 요청하셨다. 우리는 즉시 행동을 개시했지만, 대다수의 워싱턴 시내로 가는 모든 길들과 펜타곤으로 가는 길들이 차단되어 있어 현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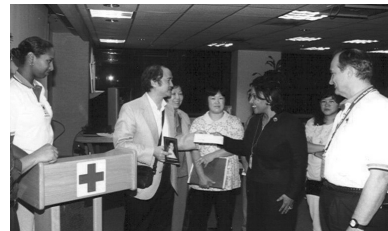
그래서 우리는 버지니아 적십자사에 미화 1만 불을 기부하고 다음에는 펜타곤 재난으로 인한 많은 희생자들이 후송된 버지니아 병원 센터를 방문했다. 펜타곤의 화재로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했지만, 사망자는 다행히 소수에 그쳤다. 많은 비영리 단체와 자원봉사단체들이 지휘 본부를 조직해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다. 우리는 생명의 전화(Crisis Link)에 미화 2천 불을 기부해 그들의 연락 업무를 도왔다. (생명의 전화는 원래 자살방지 직통전화를 취급하는 곳이었는데 현재 재난 희생자 중 친척들을 찾는 사람들의 전화를 전달하고 있다.)

이튿날 누구나 즉시 구조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스승님의 메시지를 받은 켄터키 센터 동수들이 12시간의 운전 끝에 이곳에 도착했다. 우리는 다양한 적십자 기구와 헌혈센터들과 접촉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자원했기 때문에 6시간 가량 대기 중인 상태였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적십자 본부와 미국 구세군과 연계하라는 스승님의 지시를 받고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명의로 각각 미화 5만 1천 불을 기부했다. 이 두 단체의 간부들과 직원들은 크게 감동하며 희생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스승님의 신속한 조치에 감사를 표명했다. 또 견본책자와 뉴스잡지를 전해 받고서는 채식 요리법에 관해 묻기도 했다.

이후 우리는 희생자들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버지니아 의료센터로 돌아왔다. 자원봉사 단체들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각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희생자들은 세계적인 시설 가운데 하나인 이곳에서 최상의 치료를 받고 있었다. 병원장은 차후 우리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는 현장의 전문 작업자 및 자원봉사자 작업자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지역 구세군과 접촉하고 생수와 빵, 치즈, 남자용 작업화, 개 먹이 (건물 속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동원된 개들), 무릎 보호대, 선글라스 등을 구입해



워싱턴 DC 구세군 전국본부 수석비서인 토머스 루이스 대령에게 성금을 전달하다



워싱턴 DC 미 적십자사 수도지부 공공지원 개발 집행장인 아니타 W. 파커 여사에게 성금 전달



버지니아주 알링턴 적십자사 지부의 수석 개발통신관인 진 미첼 여사와 공공지원 조정관인 베키 휴버 여사에게 성금 전달

펜타곤의 구조반원들에게 전해달라고 구세군 측에 전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인생의 무상함을 절실히 체험했다. 물질적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스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적인 혼란기에 평정을 되찾고 인류에 봉사하기 위한 신념과 용기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구조작업을 지원하도록 우리를 돕고 인도해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미국 메사추세츠 보스턴

9월 11일 아침, 세계무역센터 재난에 관한 TV 뉴스를 접하고 큰 충격 속에 있을 때, 스승님께서 보스턴 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입문자들에게

뉴욕에 가서 재난 희생자들을 도우라고 부탁하셨다. 보스턴 동수들은 뉴저지 동수들과 함께 즉시 뉴욕 센터에 가 뉴욕 동수들과 더불어 구조 활동을 전개했다. 스승님의 인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충격과 슬픔 속에 잠겨 있었을 것이다.

미국 켄터키

켄터키 동수들은 스승님의 지시에 따라 9월 11일 밤새 피곤함을 무릅쓰고 버지니아 센터에 도착해 사랑의 교훈을 배울 기회를 가졌다. 현장에 빨리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에 켄터키에서 버지니아 센터까지 걸리는 12시간은 평소

보다 길게 느껴졌다. 시내로 들어가는 길이 다소 복잡한데다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게 느껴졌는데, 우리는 밤을 꼬박 새워 오랜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온 탓에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운전을 하던 동수의 직감에 따라 정확한 주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우리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스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며 기쁨의 환호를 질렀다

미국 오하이오



오하이오 동수들이 촛불을 밝히고 모두의 명상공덕을 재난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회향하다

주말인 9월 15, 16일 이틀 동안 미시간과 미주리, 켄터키, 인디애나 동수들은 오하이오 센터에 모여 미국의 재난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기도 명상 선이(禪二)에 참석했다.

또한 오하이오 센터는 이 위난에서 극복되는 동안 계속 매일 센터를 개방하고 지역 동수들이 일을 마치고 더 많이 명상할 수 있도록 매일 단체명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센터는 신의 사랑과 지혜의 빛이 이 비극적인 일로 상처를 입은 모두에게 비추어 아무쪼록 가장 긍정적인 결론이 나길 계속 기도할 것이다!

미국 하와이

하와이 센터 동수들은 9월 11일 발생한 사고의 재난 구호작업을 돕기 위해 미국 은행에 1천 달러 수표를 송금하는 한편, 하와이 센터는 세계 평화

를 위한 기도와 단체명상을 위해 센터를 무기한 개방하기로 했다. 우리들은 또한 우리 친구와 가족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 역시 희생자들과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도록 격려했다.

미국 뉴저지

수년 전 스승님께서 뉴욕 센터에 구호팀을 조직하라고 하셨을 때 뉴욕 동수들은 이 도시에 심각한 재난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재난 소식을 접하신 스승님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뉴저지의 장주들에게 다섯 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 구호팀을 조직하고 뉴욕 센터의 구호활동을 돕는 방법을 지도하셨다. 뉴저지 센터 동수들은 보스턴 센터에서 온 20명의 동수들과 함께 뉴욕 시로 가서 뉴욕 구조

대에 합류했다. 뉴욕 구조대는 구세군(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구호단체 중 하나)과 적십자사와 함께 WTC 재난 희생자들을 위한 구조작업을 돕고 병원을 방문했다.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위해 8시간 동안 줄서 있는 등 냉담한 뉴욕 사람들이 마침내 서로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많은 감동적인 일들이 발생했다.

9.11 폭발로 세계무역센터 지역의 TV 및 휴대전화 기지국이 완전히 폭파된 재난의 여파로 뉴욕 시내의 통신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뉴저지에서 가져온 우리 휴대전화는 재난 현장과 구호센터, 그리고 우리의 많은 센터들을 잇는 주요한 가교가 되었다. 신의 사랑과 은총으로 뉴욕 지역의 동수들은 모두 무사한 상태였으며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2001년 9월 15일과 16일 주말 동안 LA 센터의 동수들 수백 명은 뉴욕과 알링턴, 버지니아에서 발생한 재난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 인류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함께 2일간의 기도 명상 선이를 개최했다. 동수들은 근심스런 분위기 속에서도 스승님의 사랑 어린 가피를 깊이 느끼며 사람들 사이의 증오와 갈등을 녹이

는 한없는 사랑과 자비심에 대해 더욱 신심이 굳어졌다.

LA 센터의 동수들은 자발적으로 뉴욕과 버지니아에서 전개하고 있는 미 동부 지역 센터 동수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또한 많은 LA 센터 동수들이 인류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서로 간의 평화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단체명상을 위해 자신의 집과 회사를 주 내내 무기한으로 개방했다. 총 2만 달러의 성금을 모아 사고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쓰이도록 기부했다. 우리는 신의 무한한 은총 속에서 인류가 사랑과 자비로운 방법을 통해 평화와 자유를 추구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미국 휴스턴

행동을 촉구하는 스승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WTC와 펜타곤 테러 사고로 인한 최초의 쇼크에서 벗어나 정신을 가다듬고 희생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한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비록 비극의 현장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9월 11일 이후 한 주 동안 매

일 밤 계속된 단체명상과 기도를 통해 이번 사고의 무고한 희생자들을 위로했다. 또한 휴스턴 센터 계좌에서 5천 달러를 재난 구호활동에 할당했다. 조만간 혈액이 대량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뉴스 보도를 접한 우리는 신체 건강한 모든 동수들에게 헌혈을 통해 생명을 구할 것을 강력히 권했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희생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상태에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비극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결속되어 세상에 영원한 평화가 도래하길 기도했다.

파나마

9월 11일 재난 소식을 듣고 우리 동수들은 깊은 슬픔을 느끼고 당일 단체 기도명상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느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저녁 함께 모여 모든 희생자들과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나중에 스승님께서 모두 별도의 단체명상과 기도 시간을 갖도록 부탁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 소식을 전해 듣기 전부터 우리는 스승님의 내면과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계평화를 위한 계속적인 단체명상 시간을 통해 우리 명상의 결실을 온 인류의 깨달음에 회향할 것이다!

브라질 상파울로

2001년 9월 14일 저녁부터 16일 저녁까지 상파울로 센터는 미국에서 발생한 재난 희생자들과 세계평화를 위해 단체명상을 가졌다. 주말에 있었던 기도 명상에는 방편수행자들도 참가했다. 우리는 신께서 무고한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인류에게 평화로운 삶을 가져다 주시길 간절히 기원한다



아르헨티나

깊은 형제애와 사랑으로 아르헨티나 동수들은 9.11 사고 희생자들의 고통스런 영혼들을 위한 기도와 명상을 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아르헨티나 동수들은 또한 단체명상 시간과 횃수를 늘리는 등 이런

영적인 지원 외에도 약소하지만 물질적인 지원도 함께 미국에 전달했다.

페루

페루의 경제상황은 그리 좋지 않아서 우리가 9.11 참사 희생자들을 돕는 길은 명상을 하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9월 13일 수요일부터 매주 3차례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리마 센터에서 세계평화와 희생자를 위한 명상을 하기로 했다.



아프리카

미국 재난에 대해 동아프리카 우간다 동수들은 미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하고 9.11 재난의 무고한 희생자들에게 각별한 조의를 표하는 한편, 지역 동수들에게 계속 수행에 정진해 줄 것을 권했으며, 스

는 애도를 전하고 9.11 재난의 무고한 희생자들에게 각별한 조의를 표하는 한편, 지역 동수들에게 계속 수행에 정진해 줄 것을 권했으며, 스

승님의 사랑과 자비로 이 세계가 점점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길 기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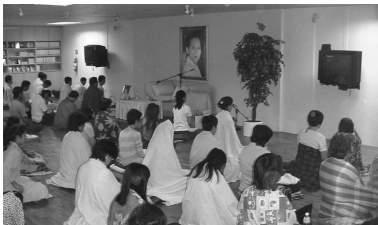
9월 13일부터는 서아프리카의 토고, 베닌, 가나 동수들이 세계평화와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단체명상과 기도를 시작했다.

영국 런던



스승님의 요청에 따라 영국 런던 동수들은 세계평화와 미국에서 발생한 재난 희생자들을 위한 특별 기도를 위해 2001년 9월 16일 일요일에 단체명상을 개최하고 앞으로도 계속 명상시간을 1시간씩 연장하기로 했다. 모두들 수행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평일 몇몇 동수들의 집에서 소규모의 단체명상이 열리기도 했다.

싱가포르



스승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받자마자 싱가포르 센터 동수들은 주말인 9월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단체명상을 개최했다. 수백 명의 동수들이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 서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세계평화를 위한 기도에 성심껏 동참했다. 센터는 또한 동수들로부터 9.11 재난 희생자 돕기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

홍콩



홍콩 동수들은 미국에서 발생한 9월 11일 재난에 도움을 주라는 스승님의 연락을 받자마자 매일 4시간씩 단체 기도명상에 참가했다. 이 행사는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계속되었으며, 홍콩 동수들은 참사 희생자들의 고통스런 영혼들이 평안히 잠들고 세계인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길 희망했다.

이 단체명상 기간 동안에는 평상시 단체명상보다 2배 가량 많은 동수들이 참가했으며, 일부 동수들은 수차례 단체명상에 참가하기도 했다. 동수들은 이와 더불어 미국의 무고한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한 성금도 함께 모금했다.

포모사

스승님의 전화를 받은 직후, 포모사 동수들은 즉각 ‘뉴욕에 사랑을!’ 구호활동에 착수했다. 희생자들을 위한 물질적 지원과 함께 모든 센터는 단체 기도명상을 수차례 개최했으며, 단체명상에 참석하지 못하는 동수들에겐 매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집에서 명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는 모두 이번 단체명상으로 결집된 수행의 힘으로 이번 재난으로 생겨난 부정적인 기운과 증오심을 녹이고, 또 우리가 보내는 신의 무한한 사랑으로 이번 재난을 일으킨 사람들과 사랑과 축복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영혼 깊은 곳에 존재하는 빛과 사랑을 느껴 다시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길 진심으로 기원했다.

타이베이 센터는 충샤오 센터와 숭산 경서실을 개방해 동수들이 기도명상을 할 수 있도록 안배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열린 이곳의 단체 기도명상 시간에는 수천 명이 참석했다. 국립 대만대학교 동수들은 ‘뉴욕에 사랑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4일 있었던 신입생 환영회에서 교내외의 평화를 사랑하는 인사들과 함께 ‘사랑의 카드’를 나눠 주고 참가자들에게 사랑의 카드에 각자의 소원을 쓴 후 풍선에 묶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 행사는 정오가 되어 3분간 묵념한 후 이번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많은 사랑이 담긴 평화의 비둘기를 상징하는 풍선들을 푸른 하늘로 보내며 절정을 이루었다. 사범대학 동수들이 결성한 ‘심신 성장 연구회’도 9월 18일 아침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하면서 9.11 미국 재난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 활동을 가졌다.

9월 16일은 일요일이었다. 포모사의 북부지역이 태풍 나리 호에 강타 당했지만, 각지에서 동수들이 폭풍우를 무릅쓰고 시후센터에서 열린 세계평화를 위한 단체 기도명상에 참석했다. 동수들은 강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우산을 쓴 채 이 수천 명이 모인 단체명상의 힘이 참사 희생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최전선에서 구호작업을 돕고



있는 동수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명상했다. 포모사의 모든 동수들은 세계 평화와 인류간의 화합을 위해 신실하게 기도하고 있다!

이 주제에 관한 생생한 영상을 보려면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eng/news/126/love1.htm>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26/love1.htm> (포모사)

미국 <뉴욕 세계일보>

2001. 9. 17. 월요일 (원문 중국어)

구호물자 기부에 대한 시정부의 호소에 중국인 단체에서 사랑을 전달하다



[뉴욕에서 오 관우 기자 보도] 2001년 9월 16일 쓰치(慈濟) 뉴욕 및 롱아일랜드 지부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를 비롯한 많은 중국인 단체들이 세계무역센터 현장에서 구조대원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대대적인 자원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WTC 폭파 후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폭파지점에서 불과 2블록 떨어진 곳에 부스를 설치하고 구조대원들에게 음식과 음료수를 계속 공급하고 있다. 남녀노소 40여 명의 막강한 팀원들은 일치 단결된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데, 각자 물품과 식품 구입, 샌드위치와 뜨거운 국 준비, 배달과 승강기 교대 등의 일을 하면서 구조대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체력과 의지력을 밀발침해줄 수 있길 희망한다.



포모사 <민중일보>

2001. 9. 16. (원문 중국어)



칭하이 무상사와 동수들이 9.11 재난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다

뉴욕 9.11 재난으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은 가운데, 칭하이 무상사는 전 세계 동수들에게 단체명상을 통해 인류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지시했다. (사진 야오 즈순 기자)

포모사 <대만일보>

2001. 9. 16. (원문 중국어)

종교단체의 구호 활동이 뉴욕인의 가슴을 적시다!

칭하이 무상사, 전 세계 센터에 물질적인 도움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다!



태풍 속에 피어난 사랑의 관심

포모사 동수들이 세계평화와 미국 9.11 재난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태풍 나리호가 포모사 전국을 강타했다. 이로 인한 폭우로 많은 지역이 수몰되고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동수들로 구성된 수륙 구조대원들이 수륙양용 구조차량을 운전해 포모사 북부지역의 구조작업을 돕다



태풍 나리 호로 인한 폭우로 바다로 변한 포모사 북부지역 도시들

9월 16일 태풍 나리호가 포모사 북부 지역에 상륙해 20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타이베이 수도 지역과 주변 위성도시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폭우로 인해 주요 간선도로가 물에 잠기고 도처가 바다로 변했다. 많은 주택지가 홍수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며 대중교통 시설은 거의 완전히 마비되었다. 태풍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이미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겪은 이재민들의 재난 후 안전 수용시설 문제가 지방 당국의 가장 급박한 중대문제로 대두되었다. 태풍 소식을 접하신 자비로우신 스승님은 즉시 팩스를 통해 제자들에 대한 염려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시면서 각 센터에 태풍 이재민을 돕기 위한 조직을 만들 것을 일깨우셨다.

9월 16일 오후, 강한 비바람으로 수위가 계속 높아지자 지붕



동후 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수용본부에 구호물품을 전하다



동수들이 생필품을 구입해 타이베이 시청부에 전달



소방서는 즉시 우리 동수들에게 지원을 요청해왔다. 포모사 동수들로 조직된 중국 수륙 구조대는 신속히 지룽 우두 일대의 바이푸 마을에 도착해 구조작업을 진행했다. 동수들이 밤낮으로 쉼 없이 일한 끝에 홍수로 고립되어 생명이 위급했던 10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다. 구조작업은 위험천만이었지만 스승님의 축복 덕택에 구조대는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다.

9월 18일 오후에는 소방서로부터 타오웬 빠더 시 까오청 지역에 긴급구조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 구조대는 재해현장에 긴급출동해 이재민들을 구했다. 까오청 가를 지날 무렵 제 5구역 동장의 집 부근이 심한 홍수를 입어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한 것을 발견한 구조대는 서둘러 물자지원조 동수들에게 연락해 이재민들에게 시급한 구호물품을 최대한 빨리 구입하도록 했다. 동수들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모든 물자들이 1시간 안에 준비되었고, 지프와 트럭으로 건조식량 80상자, 생수 10상자가 까오청 이장 사무실에 도착했다. 까오청 이장이 주민을 대표해 받아 이재민들에게 분배했다.

타이베이 센터 역시 각종 지원과 생필품 공급을 도왔다. 도로 사정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동수들은 많은 장애물을 헤쳐가며 구호품 구입과 전달작업을 진행해야 했다. 9월 18일 심하게 피해를 입은 우두 바이푸 마을의 이재민들의 식량이 떨어졌다. 타이베이와 지룽 센터의 동수들은 야채 도매상인 동수의 지원을 받아 트럭 한 대 분의 야채와 양념, 쌀을 이 지역 복지과의 임시 수용본부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동수들은 또한 거주민들에게 휴대용 식기와 젓가락, 생수, 쌀 등의 물자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는 다시 이 물품들을 구입해 나누어 주었다. 또 다른 구조대는 네이후 소방서의 성공대와 연락한 후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수건, 비누, 치약, 칫솔, 과자, 라면, 생수 등의 물품을 구입해 2대의 트럭에 실어 네이후 소방서에 전달했으며, 이 물자들은 오후 6시경 동후 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수용본부에서 배분되었다.

9월 18일 오후 3시경 타이베이 시정부가 생수와 침낭, 손전등, 건전지 등을 긴급히 요청하고 있다는 뉴스보도를 듣고 동수들은 다시 생수 100상자, 침낭 95개를 사서 당일 저녁 타이베이 현사무소가 위치한 반치아오 지역에 전달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생수 60상자와 이불 50채, 과자를 타이베이 시정부에 운송했으며, 남부 원린 지역의 지룽 당네이 이재민 수용본부에도 과자와 생수를 제공했다.

9월 18일이 되면서 휘몰아치는 태풍권 안에 들어가게 되자 지아이 동수들은 거센 폭풍우를 무릅쓰고 조사차 피해지역으로 들어갔다. 베이강의 댐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동수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모래주머니를 쌓았다. 다행히도 오래지 않아 폭우가 멈췄고 큰 재난은 피



시안 요양소에 쌀과 각종 야채 및 음용수를 전달하다



홍수로 고립된 피해자들을 구조하고 식량이 떨어진 주민에게 도시락과 생수를 제공하다

할 수 있었다. 지아이의 황금세계 주 택지는 수위가 제방을 넘어 최악의 상 황이었다. 다음날 물이 빠지자 집들은 진흙에 파묻힌 상태였고 도로는 쓰레 기로 뒤덮여 있었다. 동수들은 피해자들 의 가옥복구를 돕기 위해 서둘러 도착 했다.

동수들의 사랑과 관심의 손길은 폭풍우의 피해를 입은 각지 이재민 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동수들은 전 세계에서 일어난 재 난들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재산, 가정을 잃는 것을 지켜보면서 스 승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다. “이 세상은 무상한 것입니다. 오직 수행만이 중요할 뿐, 외적인 금전적 물질적 도움은 한시적인 것에 지 나지 않습니다.”

(주: 구호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상세한 구호물품 항목과 지출내역은 추후 잡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에 대한 생생한 화면자료를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eng/news/126/love2.htm>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26/love2.htm> (포모사)

스승님은 이 태풍 재난에 깊은 염려를 보이시고 소식을 접하신 후 즉각 포모사 동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셨다.

포모사의 모든 동수들에게

포모사의 모든 센터들은 태풍 이재민을 위해 조직하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과 관심은 포모사 사람들과 함께 하며, 여러분 해피요기들 또한 항상 내 가슴속에 있습니다. 훌륭한 이상에 대한 여러분의 지지에 감사하며, 어려움에 처한 동포들과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푸십시오.

신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여러분의 영원한 스승 칭하이

2001. 9. 17.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출판물

비디오

<영문판>

710 스승님 생신 축하공연 (상, 하)
2000년 5월 14일 한국 영동 센터 특별 공연
711 인생이라는 호텔
2001년 6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강연

<영어+어울락어 자막>

686 영혼의 만남
2000년 4월 27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강연
691 환상은 현실의 반영
2000년 5월 3일 필리핀 마닐라 강연

<영어+스리랑카어 동시통역+어울락어 자막>

687 빛의 계승자
2000년 4월 29일 스리랑카 콜롬보 강연

<영어+말레이시아어 동시통역+어울락어 자막>

688 사랑은 인생의 진정한 본질
2000년 4월 30일 말레이시아 팔라룸푸르 강연

<영어+프랑스어 자막>

353 내 사인은 여러분 가슴에
1993년 4월 15일 미국 워싱턴 단체명상
608 수행진보의 비결
1997년 12월 24-27일 미국 워싱턴 국제선사 (5집)
696 심신을 초월해야 자유롭다
2000년 5월 9일 한국 영동 센터 국제선육

<영어+네팔어 동시통역 + 어울락어 자막>

689 깨달음과 무지
2000년 5월 1일 네팔 카트만두 강연

<영어+네팔어 동시통역+ 프랑스어 자막>

689 깨달음과 무지
2000년 5월 1일 네팔 카트만두 강연

MP3 CD

<중국어판>

MP3-4 포모사 시후센터 선칠 1989년 2월 13-18일 (상)

1. 수행의 겨울을 위해 필요한 영혼의 영양제
2. 관음의 진동은 우리의 보호층이다
3. 예고 없는 법문
4. 마음을 찾은 것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5. 비평하는 마음을 놓아라
6. 깨달은 스승을 믿어야 수행이 완전하다
7. 부처를 배우려면 스승의 도움이 필요하다
8. 즐거움의 근원을 기억하라
9. 보상의 법칙

DVD

<영어+14개 국어지원>

심신을 초월해야 자유롭다
2000년 5월 9일 한국 영동 센터 국제선육

<영어+17개 국어 지원>

우리의 완전한 품성
1999년 9월 26일 미국 플로리다 센터 단체 명상

<영어+ 22개 국어 지원>

세계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며
1992년 4월 10일-5월 8일 포모사 시후센터 단체명상

스승님의 출판물을 주문하려면 이곳으로 연락하세요: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Ltd, Taipei, Formosa
Tel: (886) 2-87873935 / Fax: (886) 2-87870873 / E-mail : wisdom@m2.dj.net.tw

대만 우체국 송금계좌 번호 : 19259438

수취인: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Ltd.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우리 인터넷 서점의 목록과 스승님의 최신 간행물의 간단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mchbooks.com/> (영어, 중국어)

제 인생에 들어오신 스승님께 감사드리며

예비입문자 대주모 패트릭/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원문 불어)

존경하는 칭하이 스승님께

제 인생을 너무나 아름답게 변화시키신 스승님께 제 내면의 느낌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승님의 위대한 지혜와 한없는 사랑, 가르침으로 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 관 역시 크게 변했지요. 부디, 지고하신 하느님께서 당신께 장수를 부여하시어 더 많은 사람들을 지혜와 빛, 영원한 해탈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길 기도합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저는 아주 오랫동안 올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신께 기도해 왔습니다. 그분은 저를 당신에게 이끌어 그 응답을 주셨죠. 정말 스승님, 당신은 우리 중생에게 주신 신의 선물이십니다!

스승님, 이처럼 긴 편지를 쓰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저는 신께서 어떻게 저를 당신께 인도했고 스승님이 제 인생에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너무나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종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신에 대해선 거의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지요. ‘아버지는 어디에 계실까? 괜찮은 신가?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실까?’ 하며 저는 가끔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아버지는 외아들이었으므로 아버지의 죽음으로 우리 가족은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같이 보였습니다. 매일 밤 저는 까마득한 밤하늘을 응시하며 오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별들은 제게 “이 하늘 어딘가에 너의 아버지가 있다!” 하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장남인 제가 가족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결국에는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제 모든 것을 신의 손에 맡겨 신께서 저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저의 모든 것을 돌보시게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정보학 학위를 받고 대학을 졸업한 저는 조국인 카메룬에 머물러 일했습니다. 매번 어려움에 봉착하고 근심이 생길 때마다 저는 제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신께 기도 드렸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활동에도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했던 저는 얼마 후 교회에 가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 속의 모든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했지요.

나중에 카메룬을 떠나 남아공으로 오게 되었는데, 출발하기 전 저는 신께 기도했습니다. “주, 아버지! 제 인생은 당신의 것이며 저는 제 자신을 당신께 맡겼나이다. 당신의 뜻에 따르겠으니 부디 저를 안식처로 인도하소서.”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가족과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활방식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저는 그들로부터 많은 정신적 위안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을 주었지만, 저는 그 즉시 읽지는 않았지요. 3주가 지나 그들 중 한 사람과 성경에 관해 토론을 하던 중 저는 그의 높은 성경 이해수준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막힘 없는 설명은 제가 찾고 있던 바로 그 세계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었니까요.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패트릭 씨, 관음법문은 내게 많은 것을 알게 도와줍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당신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분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입니다. 당신은 아마 분명히 관음법문 때문에 카메룬을 떠났을 겁니다. 당신의 컴퓨터 정보학 경력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즉시 견본책자를 읽기 시작했고 성경과 서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견본책을 읽은 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처럼 순수하고 예리하게 진리를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저로서는 스승님의 위대한 지혜와 사랑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왜 채식을 해야 하는가’라는 장을 읽으면서 육식이 동물에게 끼치는 고통을 느낄 수 있었고,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회하며 신의 용서를 빌고 다시는 육식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요. 저는 아주 논리적이고 도덕적인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하곤 그때부터 채식을 지켜왔습니다. 또한 기도도 더 자주 하게 되었는데, 매월 1, 2일은 단식을 하면서 신이 진리의 길로 저를 인도하시길 빌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4개월 후, 저는 성실한 한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패트릭, 너 알고 있지? 너에게서 빛이 나고 있어!” 그 순간 저는 신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통해 신은 제 인생에 빛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관음법문이 제 모든 혼란에 대한 해답임이 분명했으므로 저는 그 다음 토요일부터 방편법을 시작했고, 이제 이곳에서 입문식을 거행할 관음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저의 이 장문의 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이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꿔놓으셨는지 정말 스승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스승님 덕분에 저는 이 성스런 사랑과 지혜의 학교에 들어올 수 있었지요. 오랫동안 저는 불행스런 일들을 겪으며 삶의 거친 풍파로 공포와 혼란 속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 스승님께서 제게 내면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제 평생 이처럼 평화로운 적이 없었어요. 새로이 태어난 느낌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성경을 읽으려고 집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일들에도 집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신에 관한 생각만 하고, 제 마음 속엔 오직 신과 스승님뿐이기 때문이지요. 매일 뉴스잡지를 읽고 성경을 공부하며, 스승님의 법상을 바라보면서 저의 스승이 되어주신 당신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저는 가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과 의복을 기부하곤 하는데, 진실로 남을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스승님, 이제 저는 제가 카메룬을 떠난 것이 관음법문 때문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천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당신의 신성한 사랑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카메룬에 있는 동안 저는 줄곧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스승님처럼 깨달은 스승이 되어 진리의 가르침을 퍼는 꿈을 꾸곤 합니다. 스승님, 제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청하이 무상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들어오신 스승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제자
데주모 패트릭 올림

다족류로부터 얻은 영감

허 씨양 사형/ 미국 뉴저지 (원문 영어, 중국어)



뉴저지 센터에 자주 오는 동수들은 0.5 센티의 폭에 길이 5, 6센티 정도 되는 무척추 동물을 보았을 것이다. 그것은 약 백 쌍의 다리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다족류라고 불린다. 보통은 풀 밑의 푸석푸석한 흙 속이나 두꺼운 부식토 층 밑에서 발견되는데, 등이 검고 많은 암적색의 고리가 있으며 지네를 닮았다. 그래서 많은 동수들이 그것을 좀 꺼려하는데, 사실 이 동물은 매우 행동이 굼뜨고 유순해서 살짝 건드리면 바로 동글게 몸을 말곤 한다.

이 다족류 동물은 종종 명상홀에 나타나곤 한다. 명상홀의 뒤쪽 출입구가 개간되지 않은 지역 쪽으로 나 있긴 하지만, 조그만 동물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뒤뜰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이 동물들이 뒷문을 통과해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동수들의 부주의로 명상홀에 떨어진 사탕봉지나 과자 부스러기를 좋아하는 개미들과는 달리 다족류는 들판의 부식토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이들이 명상홀을 찾아온 것은 먹이와는 다른 목적이 있음이 틀림없다.

7월의 어느 일요일 새벽, 4시 단체명상이 있기 15분 전 나는 10여 명의 동수와 함께 명상홀에 앉아 있다가 졸음이 와서 시원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운동도 좀 하려고 일어나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다. 그때 층계를 내려가면서 흥미로운 광경이 눈에 띄었다. 층

계의 첫 계단에서 약 10센티미터 떨어진 약간 흰 카펫 위에 길이 6센티 정도 잘 자란 다족류 동물 한 마리가 몸을 한껏 뻗으며 명상홀로 가는 계단 쪽으로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명상홀을 향해 전력 돌진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런 동물들은 행동이 매우 느리다는 관념을 갖고 있었는데, 이 동물은 이른 새벽부터 매우 빨리 움직이고 있었다. 명상홀이 목표인 것이 분명했다. 그 광경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매우 중요한 행사에 늦을까봐 서두르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다리들을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쌍으로 함께 움직이면서 정확한 방향을 잡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거의 4시가 되던 무렵이라 명상홀에는 맛있는 먹이가 있을 리 없었고, 앞문에서 명상홀까지 이르는 중간에 위치한 거실과 컴퓨터실, 부엌, 세탁실은 모두 열려 있었다. 계다가 층계 바로 옆에는 동수들이 자주 찾는 독서실이 있었는데도 그는 이런 곳에 아무런 흥미도 없는 듯 했다. 대신 명상홀로 곧장 향하고 있어 마치 새벽 단체명상에 참가하려고 서두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서식지에서 앞문까지 먼 거리를 왔을 것이다. 그리고 건물 안에 들어선 순간부터 시시각각 생명이 위험했을 것이다. 그 무렵에는 많은 동수들이 단체

명상하러 오고 있었으므로 누군가에게 밟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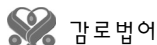
내가 그 머리를 살짝 건드리자 이 예상치 못한 방해에 놀란 동물은 몸을 둥글게 말았다. 나는 그것을 집어 밖으로 나갔다. 그는 언제든지 내 손바닥에서 미끄러져 빠져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모두 집어 움츠린 상태였다. 나는 그의 이 날 아침 분의 영적 손실을 가없이 여겨 그것을 내 오른손 위에 놓고 속으로 오불을 외워주었다. 세번째 명호까지 외우고 화단에 내려놓으려 하자, 놀랍게도 그는 다리들을 뻗쳐 손바닥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다. 나는 조용히 말해 주었다. “자비로우신 우리 스승님이 너를 돌보실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가렴!”

이 이야기는 매우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전해 준다. 이 다족류 동물의 범상치 않은 행동

은 명상홀의 높은 영적 자장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아쉬람의 명상홀은 매우 신성한 장소이므로 우리는 명상홀의 자장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신구의를 항상 청정히 해야 한다.

또한 그 동물의 행동은 그 어떤 곤란이나 위험에도 아랑곳없이 영적 자양분에 대한 갈망을 드러낸 것이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미 불보살의 지위에 오른 우리라 해도 우리가 아직도 두뇌에 속아 단체명상에 참석하지 않을 구실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이 귀중한 육신과 스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낭비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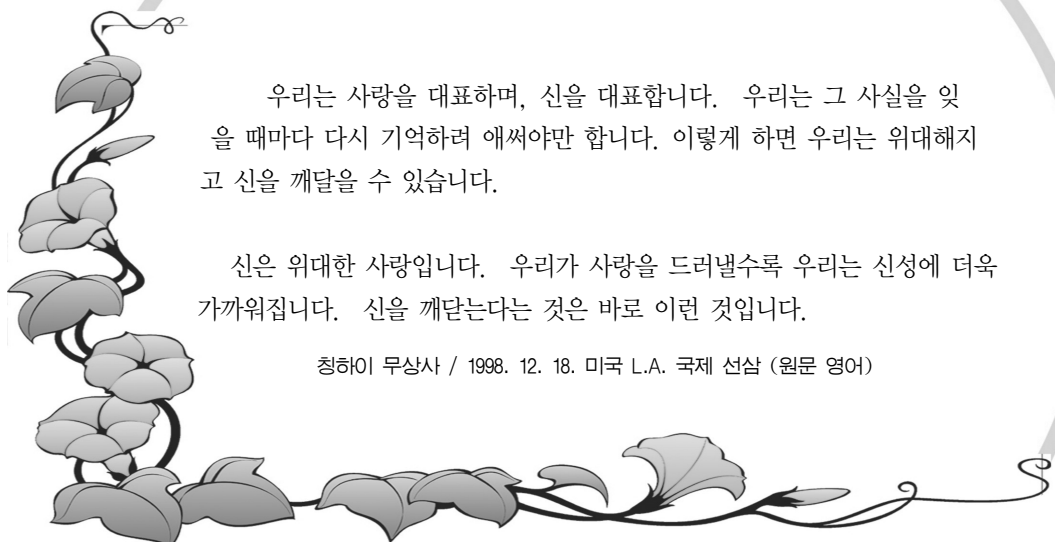
이 외에도 오불에 대한 다족류의 반응은 그 신성한 힘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우리가 일이나 운전을 할 때, 또는 밤에 다닐 때 언제든지 오불 외우는 것을 기억해 우리 주위의 모든 유형 무형의 중생들에게 이 로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우리는 사랑을 대표하며, 신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을 때마다 다시 기억하려 애써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위대해지고 신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드러낼수록 우리는 신성에 더욱 가까워집니다. 신을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 1998. 12. 18. 미국 L.A. 국제 선삼 (원문 영어)



발레리나는 너무 힘들어!

청하이 무상사/ 1999. 10. 6.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어떤 꼬마가 엄마랑 같이 발레를 생전 처음으로 보러 갔습니다. 한참을 보던 꼬마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왜 좀더 키 큰 사람한테 저걸 시키지 않죠? 저 사람들은 까치발을 하느라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이상한 논리!

청하이 무상사/ 1999. 10. 3. 미국 플로리다 (원문 중국어)

한 나이 지긋한 남자가 술집에 와서 바텐더에게 맥주를 10잔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곤 첫 잔부터 마지막 잔까지 다 마셔 버렸지요. 다 마신 후엔 “이봐요, 8잔 더 줘요” 하고 다시 청했습니다. 바텐더가 8잔을 새로 주자 남자는 차례대로 8잔을 다 마셨습니다. 그리곤 머리를 흔들며, “모자라, 아직도 모자라는군. 6잔 더 주시오.” 하고 말했어요. 새로운 6잔을 또 다 마셔버린 신사는 머리를 흔들며 다시 요구했습니다. “아니, 아직도 모자라잖아. 4잔 더 줘봐요” 4잔을 차례로 다 마셨지만, 이번에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상하네! 2잔만 더 줘 봐요” 그 2잔도 다 마셔 버리곤 고개를 젓다가 이번엔 머리를 치며 말했어요. “정말 이상하네! 좋아, 이번에는 1잔만 줘 봐요” 바텐더가 마지막 1잔을 주자마자 그 잔을 다 마셔 버렸습니다. 그는 다 마신 후 일어서려고 했지만, 어지러워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 제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곤 술집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정말 이상하네! 점점 적게 마셨는데, 왜 더 취하는 거죠?”

기 우

청하이 무상사/ 1999. 10. 1. 미국 플로리다 (원문 중국어)



아이가 없는 한 미국인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한 고아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입양하실 수 있는 아이가 있는데, 러시아 아기예요.” 부부는 펴 듯이 기뻐하며 아기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들은 집에 오는 길에 한 대학에 들러 러시아어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아니, 왜 러시아어를 배우려는 거죠? 우리 영어도 아주 훌륭한데요.” 대학 담당자가 이렇게 묻자, 그 부부는 대답했습니다. “좀 전에 러시아 아기를 입양했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 그 애가 러시아어로 말할 때 우리가 못 알아 들으면 안되잖아요.”

다음은 아동, 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연령층의 시청자를 위한 스승님의 최신 추천 영화 리스트이다.
미국 영화 등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G) 일반관객. 모든 연령 시청가능.
(PG) 부모의 지도장려. 어린이에게 부적합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
(PG-13) 부모의 주의 요망. 13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부적합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
(R) 17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부모 동반이나 성인의 안내 필요
(TV) TV영화는 일반적으로 등급이 매겨지지 않음
(*) 제한 없음

★ 실사 영화

(PG-13) A.I. (2001)	(PG-13) 러시아워 2 (2001)
(PG-13) 와호장룡 (2000)	(PG-13) 씬원 라이크 유 (2001)
(PG-13) 버블 보이 (2001)	(TV) Tourist Trap (1998)
(PG-13) 더블 테이크 (2001)	(R) 플래카드 (2000)
(PG-13) 드레곤 하트 (1996)	(*) The Party (1968)
(*) 게페토 할아버지 (디즈니 사 출시 - Geppeto)	(G) 프린세스 다이어리(2001)
(PG-13) 조는 못말려 (2001)	(PG) 비밀스런 천사 (Undercover Angel) (1999)
(PG-13) 금발이 너무해 (2001)	
(PG) 은행털이와 아빠와 나 (프랑스) (1983)	
(PG-13) 물랑루즈 (2001)	
(PG-13) 흑성탈출 (2001)	
(PG-13) 랫 레이스 (2001)	

★ 동물이 주연한 영화

(PG) 캣츠 앤 독스 (2001)

★ 애니메이션

(PG) 오즈모시스 존스 (2001)

전세계 채식식당

스페인

자연 채식식당 (동수 운영)

주소: Plaza Vannes, 7 (G.V.Ramon y Cajal, 36, dcha), 46007 Valencia, Spain

전화: (34)96-3940141

멕시코

아니타스 영양 채식 상점 (Anitas Productos Vegetarianos y Dieteticos)

주소: Oriente 1 Mz. 54 Lt. 17, Col. Cuchilla del Tesoro, Mexico D.F., C.P. 07900

전화: (52)5796-0565

천연 영양 식품점 (Tienda de Nutricion Natural)

주소: Victoria 670 pte. Saltillo, Coahuila, Mexico

전화: (52)124363 / Fax: (52)100768

관음법문은 가장 완벽한 교육 시스템이다

교육은 모든 것의 기초

국가의 흥망성쇠는 교육제도의 성공에 달려 있다. 그래서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은 교육 개혁에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런 교육 개혁은 물질적인 방면에만 치우쳐 있어 도덕 교육이 결여되어 있을 뿐더러 인류의 잠재능력 개발 역시 간과하고 있으며, 그 결과 어린이에게 필수적인 영성 계발은 그 합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양의 일부 학생들은 교사들이 자신들을 앵무새 취급한다고 불평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교사의 말 그대로 기억해야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학습과정은 듣고 기억하고 그대로 되풀이해 다시 돌려주는 식으로 고정되어 있어 교육은 아무런 변화나 흥미도 없이 단조롭고 기계화된 과정으로 퇴보하고 있다. 이런 교육 방식은 실생활과 동떨어질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지루하게 만들어 그들의 타고난 재능 개발에도 저해가 된다. 내면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얻지 못한 어린이들이 자극적이고 신기한 사물에 끌리는 게 당연하다. 게다가 사회에 만연한 물질 우월주의와 공리주의로 인해 가정의 가치와 윤리·도덕 관념이 무시되어 청소년 문제가 끝없이 차례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인간의 대부분이 두뇌의 극히 작은 일부만 활용한다는 건 과학자들 사이에 이미 오래 전에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기에 교육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학생의 잠재능력을 완전히 계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칭하이 무상사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명상을 하면 우리는 우리 내면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타고난 지혜와 접촉하게 됩니다. 일단 연결이 되면, 이 타고난 지혜는 우리에게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내면의 지식을

일깨워 주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힘, 본능을 계발시키도록 도와줍니다.” 스승님은 또한 “최근 유럽이나 미국에선 일부 학생들이 그리 고도의 명상기법이 아닌 평범한 명상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제법 성과를 얻습니다. 매일 20분 정도만 명상하는데도 놀라운 성과를 얻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이 학생들은 명상을 한 이후로 지적인 활동이나 반응체계, 기억력 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고 합니다. 전에는 반응도 느리고 기억력도 좋지 못하고 그리 총명하지도 않았는데,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일으켜 이제는 반응도 빨라지고 기억력도 좋아져 아주 총명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전보다 훨씬 빨리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110호 ‘지식과 지혜’ 전문 참고바람) 이로부터 명상이 학습과 잠재능력 계발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완전한 교육 시스템

현행의 교육제도와 비교하자면, 관음법문은 초월적 교육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지식을 억지로 집어넣는 대신, 지혜를 열어 주고 잠재능력을 계발시키며, 그 범위는 기능적 습득에 국한되지 않고 만물일체의 큰사랑을 함양시키며 인류간의 사랑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매일 명상을 통해서 내면의 전능한 힘을 계발하고 학습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오계를 지킴으로써 도덕은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가 되어 현재의 미비한 도덕교육을 보충할 수 있게 된다.

이 물질적인 세계의 일반적인 교육은 물질적인 도구나 이 세상의 언어로 진행되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오묘한 비밀은 반드시 높은 차원으로 들어가야만 깨달을 수 있는데, 관음법문은 초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인 교육방식이다. 이 수행을 통

해 우리 영체는 언제든지 더 높은 세계로 올라가 지혜로운 존재, 우주의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이점이 있으며, 이런 무형의 가르침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 “신이 매일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기만 한다면 명상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은 우주적인 언어인 내면의 찬란한 빛과 천상의 음악으로 가르칠 것이며, 어쩌면 스코틀랜드어로 가르칠 수도 있겠지요. 또 고대의 스승을 통해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나타났듯이 여러분 내면의 체험 중에 나타나면, 여러분은 그와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알고 싶은 것을 청하면 그들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칭하이 무상사의 1999년 6월 5일 스코틀랜드 강연에서 발췌)” 칭하이 무상사의 말씀처럼 완벽한 교육 시스템인 관음법문을 통해 우리는 깨달음을 얻고 행복한 우주시민이 되며, 또한 고등하고 완전한 존

재로 고양될 것이다.

사랑의 햇불을 들어 영혼의 불을 밝히자

교육 체계상 교사의 일은 매우 숭고하고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다. 교사의 부단한 노고로 사회를 위한 무수한 재원이 길러졌고 오늘날의 문명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환경의 격변에 따라 교사들은 이전보다 훨씬 혹독한 시련을 맞게 되었다. 우리 관음가족 중에도 교육계에 종사하는 동수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과연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들을 어떤 이념과 방식으로 가르치는가? 수행이 그들의 일에 어떤 이로움을 주는가? 아래에 논의된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이 교육계의 다른 사람들에게 참고가 되길 희망한다.



지혜어록

명상은 일종의 교육이다

칭하이 무상사/ 1989. 11. 11. 브라질 상파울로 (원문 영어)

명상은 일종의 교육이며 학습과정입니다. 대학에서 교수에게 질문을 하고 나서는 조용히 앉아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지혜를 배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학생이 교수에게 뭔가 물어보고 바로 교실 밖으로 나가버리거나 다른 일을 한다면 지혜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설령 교수가 학생 바로 앞에 서 있어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교수가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니까요.

명상은 우리 생활의 다른 학문처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를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학문이나 공부처럼 듣고 연습하면서 익혀야 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침묵 속에 앉아 있을 때 많은 정보와 축복, 사랑, 에너지가 우리 내면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명상 후에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명상을 오래, 자주 할수록 더욱 지혜롭고 평화롭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은 점점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교사

‘연필’ 동수, 포모사 이란

관음법문을 수행하기 시작한 후 나의 일은 보다 편안하고 쉬워졌다. 가장 믿기 어려운 변화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입문하기 전에는 학생들의 부정적인 행위에 종종 화가 치밀어 심지어 위까지 상하곤 했었다! 지금은 여간해도 화가 나질 않는다. “나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이다” 라고 하신 스승님 말씀처럼 사실 근본적으로 나쁜 아이는 없다. 다만 고쳐야 할 나쁜 습관만 있을 뿐이다. 사랑으로 나쁜 습관을 바꾸도록 그들을 돕는다면 모든 어린이들은 착하고 사랑스럽게 될 것이다.

입문한 후에 우리는 비교적 삶을 존중하는 법을 알게 되는데, 이러한 관념은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우리 학교에서는 누에를 기르는 것이 유행해서 전교생이 한 상자씩 맡아 길렀다. 하지만 학생들 대부분이 벌레를 장난감처럼 여기는 반면 우리 반 학생들은 그것을 갓난아기 마냥 소중하게 사랑하고 돌봤다. 그들은 세심하게 누에들의 잠자리를 돌보고 뽕잎을 먹였으며,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누에의 건강이 정상적인지 조사하고 심지어 아픈 벌레를 위한 양호실도 만들었다. 또 신선한 뽕잎을 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도 했다. 그들은 병든 누에를 버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돌봐준 후 묻어 주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의 인격의 대부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깊이 각인된다면, 나중에 성장한 후에도 반드시 다른 존재를 그와 같은 사랑의 방식으로 대할 것이다.

수행을 한 후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보게 되며 가치관 역시 급격히 변화하게 된다. 우리는 스승님을 따르면서 진리의 길을 걷고 조화롭게 살며 다른 이를 사랑하고 존중하므로, 우리의 모범을 통해 어린이들은 자연스레 고상한 삶을 살 것이다.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에 나는 내가 교사라는 헛된 명리심에 빠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었고 학생을 가르치는 삶 역시 훨씬 아름답고 의미있게 되었다.



지혜어록

최고의 스승은 내면에 존재한다

칭하이 무상사/ 1989. 10. 27. 미국 하버드 대학 (원문 영어)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려는 것은 스스로를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면의 부처, 내면의 신이 깨어나 여러분을 가르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앞서 내가 먼저 이 최고의 스승인 내면의 신, 내면의 부처를 깨우는 법을 알려줘야만 하지요. 최고의 스승은 여러분 내면의 신의 왕국이나 부처이지, 내가 아닙니다. 나는 단지 그를 어떻게 깨우는지 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그를 소개시켜 주고 또 그에게 어서 일어나 제대로 일하도록 말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내 일은 이게 다입니다.

- 직업 고등학교 교사 편 -

심리학 수업을 통한 의외의 소득

장 완전 사저/ 포모사 타이난

수년 전 나는 집 근처의 사립 직업고등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쳤다. ‘심리학’이라는 이름이 암시하듯이 심리학은 자신과 다른 이의 마음과 정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학문이다. 그러나 나는 마음 속으로 이 학문이 인간 존재의 의미와 본성을 진실로 탐구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심리적인 문제와 그 고통을 극복하는데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아주 명확히 알고 있었다.

이 과목이 학생들의 중요한 의문에 답을 주거나 지식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공부해야 하는 형식적인 과목일 뿐이었다. 그러나 수업 중 일어난 특별한 두 사건으로 인해 나는 아이들의 심적 요구를 이해하고 또 그로 인해 ‘인성’에 대해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한 번은 ‘지력(智力)’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면서 나는 프랑스에서 처음 이 연구와 이론이 시작될 때에는 지력을 영구불변한 천성적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얘기했다. 사람마다 능력의 발달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A 방면에서 비교적 좋게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은 B 분야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각자 잘하는 분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른바 ‘지능지수(IQ)’라는 것은 배운 지식의 결과와 논리적 사고력을 주로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류의 잠재 능력과 재능은 이보다 훨씬 종합적이고 집약적이므로 학업 성적이나 지능지수의 결과로 한 개인의 능력과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

그때 학생들의 반응은 평상시와 많이 달랐다. 평상시 수업할 때는 반에서 소수 학생만이 수업을 제대로 듣고 나머지는 잡담하거나 다른 책을 읽곤 했는데, 내가 이런 얘기들을 하자 반이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나를 주목했던 것이다. 갈망과 감동으로 가득 찬 아이들의 시선을 보면서 나는 이 문제가 그들에게 오랫동안 압박감을 주어왔으며, 오늘 나로 인해 비로소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현상은 내가 이 내용을 가르치는 다른 모든 학급에서도 반복되었고 나는 직업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학업 성적을 최우선시 하는 교육제도와 사회 풍토 속에서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잘못된 판단을 받고 불필요한 고통을 받아 왔던 것이다. (포모사의 직업학교는 고등학교 진학을 못한 학생들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다. 과거 이 학교 학생들은 사회적으로 무시되었다.)

또 한번은 6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기의 발달에 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 이 시기의 어린이는 사실 ‘성적’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그들이 더 좋은 학업 결과를 추구하는 것은 그들의 성적이 좋을 때 어른들로부터 칭찬과 상, 격려, 인정을 받고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기의 어린이는 더 ‘사랑’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내가 이런 논점에 대해 얘기하자 평소 아무런 반응도 없던 학생들은 다시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후에 나는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교직을 떠났지만 가르쳤던 아이들을 자주 만나곤 했다. 그들을 만날 때나 이전 교직 생활을 생각할 때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진다. 가르치는 동안 성적 지상주의로 아이들을 평가하고 통제하는 학교로부터 압력도 받았지만 나의 신념을 고수하고 사랑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비록 그때 과목 최우수 성적 교사라는 명예는 얻지 못했지만,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 나는 매우 자랑스롭다.

교육의 기본은 포용, 칭찬, 인정, 관심

포모사 타이난 숭 사저 구술/ 타이난 뉴스그룹 기록

대학에서 4년 동안 가르치면서 숭 사저는 개인간의 재질과 능력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학생마다 다른 교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상시 그들과 성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만을 주장하거나 우리 자신의 습관 방식으로 융통성 없이 대해서도 안 된다. 때때로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모진, 긍정적이지 않은 방법도 필요한데, 칭찬과 인정을 해주는 방식으로만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학생들의 각기 다른 가치관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때로는 칭찬을 통해 지켜보아야 한다. 관음법문을 수행하고부터는 자연스럽게 자아라는 개념을 내려놓게 되어 에고를 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고, 학생들과 하나가 되어 융합하게 되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웃음과 질책 속에서 그들에게 정확한 개념과 사랑의 관심을 전할 것인지를 배우기도 했다.

매년 각기 다른 생활배경과 연령층의 학생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보는 동안 내 최대의 수확 가운데 하나는 내면에 잠재된 문제들을 극복한 것이다. 상호간에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관음법문을 수행하며 얻은 지혜를 운용할 수 있었고, 학생을 가르치는 데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보이지 않은 변화 속에 신의 사랑이 이 신의 자녀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은 평화롭고 고요하고 긍정적이며 기쁜 우주의 힘을 느끼게 되었다.



지혜어록

초월 학교

청하이 무상사/ 1991. 6. 19.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수행자들은 세속의 대학보다 훨씬 수준 높은 다른 차원의 학교에 다닙니다. 이 세상의 학문은 대학에서 끝나므로, 우리가 이 우주의 더 위대하고 신비로운 일들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수행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승인 나는 일종의 학교로서 여러분에게 많은 학문을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 학문은 대학의 학문보다 고등한 것으로 세속적인 학문과는 견줄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학문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많은 오묘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대학에 다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학에선 많은 과목들을 가르치니까요. 그러나 여기, 우리 단체에서는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게다가 내면으로 가르치는 과정에는 어떤 언어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단체는 초월 학교인 것입니다.

- 특수 교사 편 -

불을 밝히며

포모사 타이베이 리 사저 구술/ 타이베이 뉴스 그룹 발췌

리 사저는 정신적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재
활반 교사다. 그녀는 수년 동안 특수교육에 종사하며 ‘심
신장애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리 사저의 학급은 아
이큐 50 이상의 자폐증, 신체장애, 시각 및 청각 장애,
정신분열증상 등으로 인한 학습장애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학생들은 일반 학생과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지
만, 재활반에서 특수한 개별지도를 받기도 한다.

부모라면 누구나 건강한 자녀를 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 사실을 감당
해내지 못한다. “부모와 자녀 모두 이런 심리적인 두
려움과 움츠림을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고 리
사저는 진심으로 말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많은 부모
들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가슴 속에 그 사실을 숨
긴 채 남몰래 울기만 한다. 결국에는 아이를 버려 이
어린 영혼에게서 안식을 빼앗는다. 리 사저는 또 이렇
게 말했다. “나는 많은 위대한 부모들도 봤습니다. 그
중 일부는 편부, 편모였지만, 그들은 자녀와 함께 용
감하게 어려운 삶에 도전해 어둠에서 벗어났습니다.
포모사의 유명한 장애투사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
다. “신은 내가 전신의 노력을 통해 인생의 빛을 증명
하도록 나와 장난치시는 것뿐이다.” 모든 장애인들이 이
처럼 긍정적이고 자유로운 자세로 살 수 있는 건 아닙
니다. 그들에겐 인생의 불을 밝히고 그 자신의 길을
알려주며 때로 용기와 지원을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는 장차 그들의 오랫동안 닫힌 마음
의 문을 열게 되지요.”

리 사저는 관음법문을 수행한 후 내면으로부터 끊임
없이 샘솟는 격려의 힘을 발견하고 사랑과 인내심으로
이 어려운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그들

을 받아주고 그들과 동화되지만, 응석을 받아주거나
과잉보호를 하지 않으면서 이 어린이들을 가르친다.
빛을 밝혀 안내하는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종 유연한 방법을 찾아 어린이들의 신뢰를 쌓고 자
신이 그들을 이끌고 도와주고자 하며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이란 느낌을 심어주고자 노력한다.

리 사저의 재활반에 한 1학년 남학생이 있었다. 그
부모는 아이를 낳을 무렵 굉장히 젊어서 아이가 선천
적 청각 장애자로 태어나자 깊이 상처받아 아이를 집
에 가두어 놓고 아이에게 불안감을 주었다. 아이가 처
음으로 학교에 왔을 때는 자폐증이 심해서 그는 학습
을 거부하고 다른 급우들과의 접촉도 기피했다. 그래
서 아이의 답임은 그를 리 사저의 재활반에 참여하도
록 했다. 그와 같은 청각 장애자인 다른 고학년 학생
들이 수화훈련에 즐겁게 참여하는 동안에도 그는 늘
혼자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리 사저는 온갖 노력
을 기울여 그를 이끌려 했지만, 그는 줄곧 울음으로
반응할 뿐이었다.

그래도 리 사저는 포기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아이
인 양 그를 돌봤다. 그는 그녀의 끝없는 사랑과 지도
덕분에 조금씩 변하여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게 되었
고 전날 집에서 본 TV 프로그램에 대해 얘기하기도
했다. 또 매일 리 사저에게 무언가를 가져오곤 했다.

그 외 고학년 학생들도 좋지 않은 일을 당하면 그 상
처를 리 사저에게 퍼붓곤 한다. 하지만 리 사저는 인
내심을 갖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면서 그들이 그런 상
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킨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노력하고 더 많은 역경과 시련을 극
복하는 사람의 인생이 보다 의미 있으며 더 밝게 빛난
다는 점을 그들에게 이해시킨다.

즐거운 작은 천사

리엔 사저/ 포모사 이란

“부모는 자녀의 가장 훌륭한 선생입니다”라고 스승님은 말씀하셨다. 아이들 중에는 반항심이 강하고 가르침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이는 영리하고 조숙하여 모든 사람에게 귀여움을 받는다. 이런 아이의 인성적 차이 외에도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 사회 환경은 어린이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 중에서도 가정 교육의 영향은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관음가정에서는 어떻게 아이를 즐거운 작은 천사로 교육시키는지 알아보자.

“아빠, 아빠!” 아기의 첫 웅얼이를 듣고 나는 조금 놀랍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한 살도 안 된 아기가 어떻게 아빠란 말을 할 수 있지?” 남편(동수)은 집에 돌아와 내 말을 듣고서는 굉장히 기뻐했다. 아기가 처음 한 말이 아빠라니! 하지만 며칠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한 결과 우리는 아이가 벽에 걸린 스승님의 법상을 만지며 스승님을 응시한 채 ‘아빠’라고 말하는 걸 알게 되었다. 결국 스승님을 ‘아빠’라고 불렀던 것이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스승님의 불찬 테이프와 강연 오디오 테이프를 듣고 매일 아름답고 부드러운 음악을 들었다. 당시 내 가장 큰 바램은 우리 아기가 나중에 우리와 함께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아이는 태어난 후 조금씩 성장해 나갔다. 우리는 해질녘에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공원에 가서 예쁜 꽃과 식물들을 구경하고 때로는 바닷가에 가서 해조음을 듣기도 했으며, 숲에서 대자연을 느끼기도 했다. 우리는 센터에 일하러 갈 때도 아이를 데리고 가서 견학을 시켰다. 우리 친척과 친구들은 모두들 태중에서부터 채식을 한 우리 아이에게서 신기하고 영특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했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나는 직장을 그만 두고 전업 엄마가 되기로 결정하면서 나는 하루 종일 아이와 지내며 아이에게 행복한 유년기를 만들어 주고 싶었다.

아이가 좀 자라고서는 교육적인 만화영화를 보여주고 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는 자기 스스로 오디오 테이프를 켜는 법을 익히기도 했다. ‘스승

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출판되어 아이가 잠들 때 그 책을 읽어주면 아주 좋아했다. 집에는 늘 스승님의 불찬을 켜놓아 부드럽고 아름다운 음악이 항상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아이는 한동안 수행가곡을 너무 좋아해서 수주일 동안 질리지도 않고 계속 그 음악만 듣기도 했다. 이런 환경에 강한 영향을 받아서인지 아들은 그림과 음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독서하는 습관도 익혔다.

유아시절부터 우리는 종종 아이가 자는 동안 그 침대 옆에서 명상했었다. 아이는 자다 깨어나도 마치 부모의 명상하는 모습이 당연한 것처럼 시끄럽게 굴지 않았다. 잠깐 우리를 건드렸다가도 바로 혼자서 나가 놀았고, 때로는 우리와 함께 앉아 있기도 했다. 여섯 살이 되어가자 입문을 하고 싶어한 아이는 스스로 반입문을 했고 그때부터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명상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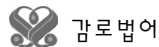
물론 아이는 곧잘 잘못하기 마련이다. 작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인내심을 갖고 타이르면 아이는 곧 잘못된 점을 고쳤고,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자기 방석을 갖고 와 스승님 법상 앞에서 참회하도록 시켰다. 그리고선 아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말해 주고 다시는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명심하라고 일렀다. 나는 항상 우리 아이가 그 또래 다른 아이들보다 영민하고 아량이 넓다는 걸 느끼곤 한다.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친밀한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아이는 문제가 생기면 숨김없이 말해 주었다. 아들은 내성적이고 부끄럼을 많이 타는 성격이

긴 해도 한편으론 명랑하고 낙천적이며 주관이 뚜렷했다. 학교에서의 대인관계도 원만해서 동급생들은 우리 집에 자주 놀러오곤 했다.

종종 우리는 그에게 “수행과 명상이 항상 우선이다. 도덕성도 중요하다. 그 다음이 건강과 예술 수양이고, 학교 공부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일깨워준다. 또 일상생활 점검표를 만들어 어느 순간이든 자신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고, 때로는 스승님의 감로법어를 읽어 주고 설명해 주면서 그의 생각을 묻거나 그 뜻을 설명해 보라고 했다. 우리는 이런 방법이 아이의 순탄한 수행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했다. 아이가 때로 우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우리에게 정말 훌륭한 동수 노릇을 한다.

수행이라는 멀고 긴 여정을 가는 동안 아이는 작

은 천사처럼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우리 삶을 다채롭게 꾸며준다. 수행을 하지 않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 우리 아이는 확실히 더 영민하고 순수하다. 행동과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며 성격도 침착하다. 가끔 동급생들의 영향을 받아 다소 부정적인 행동도 보이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설명하고 분석해 주면 이해하고 바로 행동을 고쳐나간다. 우리는 스승님의 가르침으로 아이를 키우는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를 키워나가면 그가 자연스레 올바른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스런 작은 천사를 주셔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스승님께 너무나도 감사 드리며, 아이가 언제까지나 순수한 어린이의 마음을 간직한 채 영원히 관음법문을 수행해 나가길 기도한다.



청하이 무상사/ 1992. 3. 3. 싱가포르 (원문 영어)

어린이들이 유년기부터 도덕적 기초를 갖고 자란다면, 튼튼한 뿌리를 땅에 내린 나무처럼 쉽사리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 뿌리가 튼실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조금만 자라도 비바람이나 다른 자연의 힘에 쓰러질 것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성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며, 성인들을 주위의 모든 나무들에게 향을 전해주는 백단향 나무와 같은 존재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사실입니다!

돌에서 성인이 되기까지

청하이무상사/ 1991. 7. 2. 코스타리카 산호세 (원문 영어)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

중국 맹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맹자는 중국의 매우 지혜롭고 이름 높은 성현 중 한 사람이지요. 그에겐 성인과 같은 어머니가 있었는데, 맹자가 성인이 된 것도 바로 그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린 시절 맹자의 집은 동물들을 죽이는 도살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는 동물들을 도살하는 백정들을 보고 와서는 개구리, 고양이, 개 등 작은 동물들을 잡아서 본 그대로 훔내내어 그것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좋은 나쁜지 뭐든지 따라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촌들과 이웃집 아이들이 늘 밖에서 새를 잡아 구워먹곤 하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온갖 곤충들을 장난감처럼 죽여서 갖고 놀았는데, 나는 결코 그런 짓을 해본 적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무슨 일이든 그대로 따라하지요.

맹자의 어머니는 아이가 나쁜 습관이 든 것을 보고는 “이곳은 내 아이에게 좋지 않은 곳이야” 하고 생각하고 맹자를 위해 이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성인과 다름없는 어머니였어요. 그들은 부유하지 않았고, 내 생각에 남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남편은 죽었겠지요. 맹자의 어머니는 혼자 천을 짜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천을 짜는 일로는 그리 많은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에 아주 가난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시간과 정성, 돈을 모두 희생해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위대한지 상상이 갑니까? 그래서 내가 그녀를 성인과 같은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이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교통 시설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이 어머니와 아이 뿐이었겠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어 맹모는 맹자가 매일 집에 돌아오면 곡을 하고 울면서 초상을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매일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보곤 그때서야 모지가 집 옆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맹자가 거기서 배워왔던 겁니다. 그래서 맹모는 “이곳도 아이를 키울 만한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세 번째 이사를 해서 마침내 서당 옆에 살게 되었습니다. 서당은 공자를 비롯한 모든 성현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었으므로, 이제 맹자는 집에 돌아와 성인처럼 행동했어요! 그는 훌륭한 학자의 예법과 성인의 사상을 배워 예의 바르고 고귀하며 숭고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맹모는 “아, 이곳이야말로 우리 아이를 위한 곳이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자 맹자는 자연스레 서당에 갔습니다. 그는 서당에 가는 걸 아주 좋아해서 “저는 공부하러 가는 게 참 좋아요” 하곤 했습니다. 그는 학자처럼 되고 싶어 서당에 갔지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이유인지 학교에 싫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선생님께서부터 야단을 맞았거나 친구들이 좋지 않아서, 혹은 그 자신이 게을러졌기 때문이었지

요. 그래서 그는 수업 시간인데도 집으로 와 잠을 자며 더 이상 학교에 가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짜던 천을 자르다

맹자의 어머니는 그날 모든 이유를 동원해 그를 학교에 돌려보내려고 설득했지만, 그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면서 완강하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그가 너무 고집을 부리자 당시 짜고 있던 비단을 칼로 자르고 나서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이 비단이 값어치가 있는냐? 이것이 쓸모가 있겠느냐?” “당연히 쓸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을 망쳐 놓으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비단을 왜 자르신 겁니까?” 맹자가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너의 학업과 같다. 만일 네가 공부를 계속해 마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네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다면, 예전에 공부한 것은 헛것이 되며, 다음과도 이어지지 못한다. 중도에 포기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꾸준히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수행이 전에 매우 훌륭했고 장래에도 훌륭할지라도,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곤경이나 장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언제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주고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강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도 익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를 겪게 되고, 결코 성장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잊혀진 성모(聖母)

맹자의 어머니가 평범한 어머니였다면, 오늘날 우리는 맹자의 이름을 결코 들을 수 없었을 것



이며, 맹자는 성인의 반열에 오르지도 못했을 겁니다. 중국에는 인구도 많고 땅도 광활하여 이렇게 큰 곳에서 소수 성인의 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것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름을 드날리는 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중국의 4, 5천년 역사 속에서 소수의 걸출한 한 사람이 되는 건 결코 범상치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맹자의 어머니를 잊고,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녀가 비단을 자르고 세 번 이사했다는 것만 알지요.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맹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 가르침보다 훨씬 가치로운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시대의 스승이 될 만하며, 모든 어머니들의 스승으로서 모든 스승들의 스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녀가 성인, 지혜로운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결코 그런 상황과 가난 속에서 그렇게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어머니가 없는 맹자가 어떻게 됐을지 상상이 갑니까? 아마 그 걸출한 성인은 매일 동물을 죽이는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았을 겁니다. 우리는 ‘돌에서 성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성인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열 수도 있을 것 같군요. 정말 가능합니다! 사람들에게 훌륭한 모범과 좋은 환경, 훌륭한 가르침을 주면 사람들은 성인이 될 것입니다.

유년기 교육의 중요성

티베트 사람들은 한 사람의 승려를 만들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승려들이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지요. 그들은 아주 어릴 때 절에 들어가는데, 대개 고아나 부모가 양육할 형편이 못 되는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절에 들어가서는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않지요. 그

래서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들의 성인으로서의 등급이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들의 태도나 행위는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므로 유년기의 교육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할머니와 아버지가 나의 훌륭한 선생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연세가 많아서 글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할머니에게 어른들이 읽는 철학서적들을 읽어드리곤 했는데, 할머니는 그 책들에 대단히 심취해 있었습니다. 나는 할머니를 매우 좋아해서 항상 할머니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많은 책을 읽어드리는 담당이 되었지요. 나중에는 내가 할머니보다도 더 매료되어 할머니가 주무시거나 바쁘시면 나 혼자서 그 책들을 다 읽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린이가 읽을 수 없는 장자와 노자 등 각종 중국 서적과 다른 문화권의 온갖 철학서적들을 읽으며 밤에 잘 때면 성인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꿈속에서는 온갖 신통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나는 그때의 일로 지금의 내가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향을 받은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임산부에게 양서를 읽고 아름다운 얼굴을 생각하고, 또 침대나 집 곳곳에 아름다운 그림을 걸도록 시킵니다. 예쁜 아이를 낳기 위해 태아에게 고귀한 사상을 심어주기 위해서지요. 그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부모의 신성한 의무

사실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신이 부모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그들의 사명을 잊고,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자신들의 소유물로 생각하지요. 자녀가 자라서 이름을 날리고 부모를 위해 돈을 벌고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들은 아이들에게 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워야한다거나 이런저런 일을

해야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면에는 아무런 도덕적인 동기도 없으며, 오직 금전적인 동기만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지 모든 가정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겨우 직업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아내나 남편을 얻기 위해, 그리고 좀더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10년, 20년을 공부해야 한다고 서로에게 주입시킵니다. 우리 사회는 늘 이런 점만 강조하지요. 그리고 종교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를 목사에게 보내기도 하지만, 이 목사들도 모르는 마참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행하려면 이렇게 홀로 남아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연이라도 성인을 만나거나 살아있는 스승의 높은 가르침과 접할 만한 복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머리에는 오직 한 가지 이상만을 갖게 됩니다. 즉, 돈을 벌고 지위를 얻고 오리나 돼지, 다른 동물을 기르듯이 아이를 기르는 것만을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생과 신에 대해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가르쳐 줄 스승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돈을 위해 학교에서 10년, 20년씩 세뇌당합니다. 탁 터놓고 말하자면 그것만이 삶의 유일한 동기지요. 그런 동기에 수많은 밀가루를 뿌리고 그 위에 후춧가루나 칠리 소스를 뿌려 위장해도,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돈이 목표일 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생계에 필요한 적당한 돈만 벌려는 것도 아니고, 때로 돈을 위해 모략을 꾸미고 존엄성을 팔며 모든 도덕규범을 잊게 만듭니다.

사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며 심지어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모든 가족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구하고 돈을 벌어야 하지만, 그 외 모든

것을 잊을 정도로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우리가 신과 가까이 있다면 그건 ‘재물 신’이나 ‘은행 신’ 일 겁니다!

대도둑 이야기

큰 도둑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둑은 수많은 범죄와 살인을 저질러서 나라에서 그를 교수형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처형이 이루어지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소원을 빌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지명수배당해서 유명했는데, 후회도 하지 않고 양심도 없는 아주 극악무도한 도둑이었습니다. 마치 바나나를 자르듯 사람을 죽였지요.

그런데 이제 그의 마지막 소원이 어머니를 보게 해달라는 거였던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래도 그에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걸 알고는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지요. “그래, 온 세상을 뒤져봐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음이 틀림없어. 그녀만이 그를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일 테니, 어머니를 보고 싶다는 것도 당연해.”

그래서 그와 대면시키려고 어머니를 불러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도둑의 처형을 보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서 있는 그에게 그의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껴안자 잠시 후 갑자기 그의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더니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얼굴 한쪽에 선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 도둑의 입에는 어머니의 귀가 물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와 “이게 무슨 짓인가, 왜 어머니의 귀를 물어뜯었나?” 하고 묻자 그는 그 귀를 높이 들고 어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진짜 죄인은 내가 아니라 저 여자다. 당신들의 재판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



린 학생일 당시 그의 가족은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았지요. 어느 날 연필을 집에 놓고 와서 그는 학교에서 친구에게 한 자루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깜빡 잊고 연필을 돌려주지 않은 채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내 정신 좀 봐. 친구에게 연필을 빌렸는데, 돌려주는 걸 잊었네. 그 친구가 잊어버리기 전에 친구에게 돌려주고 올게요!” 하고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자 어머니는 그를 만류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다! 그냥 갖고 있다 나가 써! 내일은 잉크도 빌리고 책도 빌려. 그리고 나서 돌려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학용품을 사주지 않아도 되잖아. 친구들이 잊어버리면 잘 된 거지. 네 손에 들어온 이상 그것은 네 거야. 네가 가질 수 있는 건 모두 네 것이란다.”

그러나 몇몇 친구들이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자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애들이 물건을 돌려 달래요. 돌려줄까요?” “안 돼! 그럴 필요 없어! 다음 번에 또 그러면 그 애들을 때려줘라.”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면서 어린 그에게 강제로 물건을 빼앗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는 자신이나 어머니에게 필요한 더 큰 물건들을 어머니의 지휘 아래 훔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을 때리기만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나중에는 습관이 되어 아무 이유도 없이 죽이게 되었습니다.

성인을 가까이 하라

그러니 여러분은 그가 원래 아주 정직한 아이였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는 빌린 물건을 돌려주려고 했어요. 중국의 성현인 맹자보다 훨씬 훌륭했지요. 그는 어릴 때부터 이미 선악을 구분할 수 있었지만, 맹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맹자는 모든 것을 그냥 따라했을 뿐이지요. 다만 맹자에겐 그를 훌륭한 성인으로 만든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 뿐이지요.

그러므로 주변 사람은 아주 중요합니다. ‘친구는 골라서 사귀라’는 베트남 말이 있는데, 그건 친구를 사귄 때 주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유감스런 일이지요. 그러므로 가족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면 아주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을 만나지 못한다면 훌륭한 도리에 대해 알 길이 없을 겁니다. 이 두 아이의 사례에서 보듯이, 하나는 어리석고 철없는 아이가 아주 훌륭한 성인으로 바뀌었고 다른 하나는 정직하고 순수한 아이가 흉악무도한 범죄자로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군가를 평가하려면 그 사람의 배경도 알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깨닫지 않는 한 그것을 알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남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어떤 사람도 심판하고 싶어하지 않고 돕고만 싶어집니다. 그것이 깨달음의 좋은 면입니다.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게 되지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정확한 개념이 부족해 실수하는 어린아이처럼 보게 되어 그것을 알려 주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것은 둘째치고도 이것이 깨달음의 진짜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항상 성인들을 사귀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성인들을 매우 존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들 그들을 쫓아다닙니다. 서양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돈을 좇지만 인도 사람들은 성인을 좇습니다. 그들은 성인들을 ‘추적’하기 때문에 모든 성인들은 두려움에 쫓겨 도망가야만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무서워 숨어버립니다.

설사 치료법

청하이 무상사/ 2000. 5. 12. 한국 영동 (원문 영어)

한 가지 민간요법이 생각납니다. 설사에는 후추와 농축 간장을 바른 토스트가 좋습니다. 후추는 입맛에 맞게 넣으세요. 백후추든, 흑후추든 상관없이 그것을 간장과 함께 섞어 풀이나 잼처럼 될 때까지 끓이십시오. 그리고 나서 토스트에 바르거나 토스트를 거기에 찍어 먹으면 즉시 설사가 멈춥니다. 토스트를 검게, 혹은 진한 갈색으로 태우면 탄소처럼 되어 독을 빨아들입니다. 간장을 농축될 때까지 끓이면 풀처럼 걸쭉하게 되는데, 설사를 할 때는 배가 차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후추를 넣어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후추는 또 소독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후추간장을 바른 토스트를 쌀죽과 함께 먹으면 설사는 바로 멈춥니다. 아니면 생강 가루를 물에 탄 생강차를 마셔도 됩니다. 이런 방법들은 서로 조화를 부려 분명히 설사를 멈추게 만들 겁니다.

개미 제거법

세리 왕 사저/ 미국

개미를 집에서 없애는데 효과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경제적이고 간단하면서 환경오염도 없습니다.

1. 식초를 집의 모든 입구와 구멍 주변에 뿌립니다. 개미들은 식초와 비슷한 냄새가 나는 페르몬을 분비하는데 개미들이 식초 냄새를 맡으면 다른 개미들이 이미 그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2. 집의 모든 입구와 구멍 주변에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그리고 약 2 주간 두었다가 쓸어버리세요. 이렇게 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효과가 있습니다. 일 년에 한두 번만 하면 됩니다.

천연 방충법

청하이 무상사/ 2001. 6. 23. 미국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컨벤션센터 (원문 영어)

집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려는데, 벌레나 곤충들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이에 스승님이 다음과 같은 현실적이고 환경에도 좋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물과 식초를 반반 섞어서 집을 청소하세요. 그러면 살균도 되고 냄새도 없애며 곤충들을 끌어들이는 냄새도 지울 수 있습니다. 벌레가 들었던 물건은 모두 깨끗이 씻어 햇볕을 쬐고 털어 내고, 매일 혹은 자주 물과 식초를 반씩 섞어 청소하십시오. 냄새를 참을 수 있다면 식초를 좀더 타세요. 그리고 집밖에서 창틀이나 문틀에 무독성 방충제를 뿌려두면 벌레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 들어오겠지요. 일주일에 한번이나 가끔 방충제를 뿌려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도 깨끗이 씻고 위생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충들이 번식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어릴 때부터 도덕적 기초를 세우라

청하이 무상사 / 1995. 11. 3. 포모사 시후센터 (원문 영어)

좋은 모범을 보이고 그로써 우리 아이들이 용감하고 솔직할 수 있도록 가르치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위해 여러분 스스로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로서의 임무입니다. 아이들은 매우 빨리 배우기 때문에 학교에서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워 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늘 도덕적으로 올바른 모습만 보여주지 않을 뿐더러 친구들도 따라 배울 만큼 훌륭한 모범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도 학교에 보내봤는데, 학교에 가기 전에는 착하고 귀엽고 차분하고 얌전하던 아이들이 몇 년 학교를 다니더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과 달리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심지어 부모와 말다툼이나 폭력적인 반항을 하기도 합니다. 매우 충격적입니다!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청소년 문제

그렇다고 학교에 가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아이들을 학교에 못 가게 한다고 난리가 나서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그들은 학교에서 하루종일 지내고 귀가해서도 허둥지둥 숙제하다가 잠자리에 들기 바쁩니다. 그래서 부모보다는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더 많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요즘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한 아이가 나쁜 짓을 배

우면 다른 아이들이 모두 따라합니다. 정말 용감하고 충명한 아이가 아니라면 그것을 따라하지 않기가 정말 힘듭니다. 다른 아이들을 따라하지 않으면, 불량 학생들이 협박하거나 창피를 주어 결국에는 나쁜 일을 따라하도록 만들지요. “넌 남자의 자격이 없어. 네 자신을 봐라, 착한 애야. 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여자도 모르고 마약도 모르고 담배도 할 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지! 우린 다 알아. 야, 용기도 없냐? 너는 ……”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에게 애송이, 샌님이라고 부르면, 어린 아이는 자존심이 상해 언젠가는 같이 휩쓸리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원래 나쁜 것이 아니라 학교에 가서 나빠지는 것입니다. 불량 학생이 되어도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심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가거나 전기의자에 앉지도 않고 심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이 점을 아는 아이들도 있지요. 신문을 보면 이런 일들을 알 수 있으므로 그들은 그 사실을 크게 떠들기도 합니다. “우린 미성년자라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감옥에도 오래 있지 않고 아무도 우리에게 심한 처벌을 내릴 수 없다. 살인을 해도 죄를 면할 수 있다!”

요즘 아이들은 총이나 칼을 들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런 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뿐입니다. 아이들은 서로 모여 세력을 키우는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한편으론 아직 미성년자라는 핑계를 댑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무서운 세상 속에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겐 너무나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돈과 시간이 풍족합니다. 학습 보조 도구도 많아서 빨리 배우며, 그러면 더 많은 시간과 자유가 남아돌게 됩니다. 또 아이들에게 뭐라 할라치면 아동학대라고 해서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지요. 사실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을 무서워합니다. 아이들이 집에 와서 부모를 때리고 돈과 온갖 것을 달라고 협박하기 때문에 ‘익명의 학대받는 부모 모임’ 같은 단체도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에 이런 단체들이 존재합니다.

수행을 통해 세상의 부정적 영향을 조율하자

아이들을 두려워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힘들여 일해 돈을 벌어 아이들을 양육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늙어지고 아이들 양육에 대한 걱정과 불안 때문에 병이 듭니다. 반면에 아이들은 하는 일도 없이 많이 먹고, 오토바이, CD, 카세트, 텔레비전 등을 즐기며 플레이보이지 같은 것들을 읽고 온갖 나쁜 것들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점점 강해지고 나빠지며 부정적으로 변해 부모들을 위협합니다. 부모들은 어릴 적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 대해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혈육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들끼리 연대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원래는 아이들이 더 말을 잘 듣고 약해서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부모들이 보호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 아이들은 돈 때문에 부모를 고소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이런 걱정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아이들을 미아오리에 데려와 관음법문과 오계를 가르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 막심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되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저런 것을 가르치는지 의심하며 반대하는데, 여기서는 그 어떤 나쁜 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모와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가르치지요. 그들이 만약 이곳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안다면 서둘러 아이들을 데려와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를 부모들이 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교육이 만들어낸 불량아들의 대가는 부모들이 가장 먼저 치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오는 아이들이 모두 천사처럼 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최소한 80%는 그렇게 될 것이며, 아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지는 위험도 최소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일부분이라도 평형을 맞추고 외부 세상의 100%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거나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하지요! 내면에 좋은 게 전혀 없이, 또 그 부정적인 영향을 억누르거나 감소시킬만한 것이 전혀 없이 100% 부정적인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어릴 때의 모습이 어른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 잘 배우면 어른으로 성장해서도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사실이지요. 그러니 왜 일부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다. 그들이 장차 이 문제를 피하고 싶다면, 어서 나를 찾아와 배우고 아이들을 여기에 보내야 할 것입니다. 각국 지도자들도 이런 가르침에 고개 숙여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말은 내가 아닌, 이 가르침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이 각국, 각 정부, 각 나라의 온 사망에 퍼져 나라도 부강해지고 총이나 폭력, 온갖 화학무기들에 의지하지 않고도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체명상을 통한 교육 보장

그들도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도덕적이고 윤리



적이며,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영적 규범을 존중하고, “우리는 신을 믿습니다”라는 식으로 내면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미덕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요. 미덕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체처럼 함께 강제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며, 미덕이 우리의 제 2의 천성이 되도록 매주, 혹은 매일 지속적으로 보강해야만 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줄곧 나쁜 것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매일, 또는 적어도 매주 지속적으로 그것을 청소해 주지 않으면 진보할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나는 모든 국가와 정부, 지도자들이 우리 가르침을 수용해 범국가적인 교리로 삼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매주 단체명상과 비디오 시청을 통해 그 교리를 보강해 나가는 편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모이면 힘이 강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명상을 하면 진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부 조용히 앉아 있으면 자기도 앉을 수밖에 없지요.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은 단체의 힘에 의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만일 모든 학교가 일정한 날짜나 시간에 명상을 하고, 계율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순수한 삶의 훌륭한 점을 가르친다면 당연히 아이들이 그것을 익힐 것입니다.

조기 교육

어릴 때 배운 것은 마음 속 깊이 새겨져 영원히 기억됩니다. 어릴 때 배웠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잊혀지지 않지요. 어릴 때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유년기 환경의 영향으로 안 좋아져 비정상적으로 되었거나 병이 심하고 쉽게 놀라고 좌절감

과 우울증에 빠지는 온갖 사람들 때문에 말입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어린 시절의 영향에서 생깁니다. 그가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또 다른 사람으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엄격한 가르침 속에서 자란 아이는 버릇없이 자란 아이보다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것은 모두가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이런 순수한 규범과 논리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으로 훈련시킨다면, 어린 아이들은 그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영혼이 매우 순수하기 때문이지요. 아이들을 100% 좋게 만들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아마 100명 중 50명만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도 성공적인 것입니다! 아니면 그 중 60, 70%가 좋아질 수도 있겠지요. 30%가 나쁠 수 있지만 그들도 완전히 나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 30%의 아이들이 나머지 6, 70%의 아이들만큼 좋진 않아도 그들의 폭력적인 성질은 최소화되고 또한 사회에서 나쁜 일을 저지를 내적인 충동도 최소화됩니다. 그들도 영향을 받을 테니까요. 그러므로 이 가르침은 대단히 유용합니다. 여러 센터의 우리 자녀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동수들이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말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아주 행복합니다. 여러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니까요. 우리 가르침은 아주 강력하며 그 힘은 내가 죽은 후에도 수백 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박수) 그 후의 일은 신의 뜻과 여러분의 자자손손에 달렸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법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강한지에 달렸지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이 나타나 다른 법맥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도 결국 같은 법맥이지만 장소가 다른 것뿐입니다. 나는 모든 나라가 우리의 가르침을 배워나가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모든 정부와 지도자, 부모들이 이 순수한 가르침을 배워 가정과 나라, 단체에 적용한다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수행하는 가정, 성인이 되는 개인

청하이 무상사

1993. 10. 18. 일본 나리타공항 (원문 중국어)

사실 대다수 나쁜 아이들은 정말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다수 살인범이나 강도 역시 그렇게 나쁜 게 아니지요. 그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고 대신 나쁜 것만을 가르치는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에 나쁘게 변한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도덕 규범을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고작 산수나 역사, 다른 과목에 대한 것들만 암기하고 빨리 학교를 졸업한 후 직업을 얻고 돈을 벌 뿐입니다. 가정에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만 채근합니다. “공부를 잘 못하면 나중에 커서 돈을 벌지도 못하고, 돈을 못 벌면 좋은 마누라도 얻지 못한다” 같은 말만 합니다. 학교에서도 이렇게 강조하지요. 모두들 겨우 돈과 지위, 명예를 위해서 서로 경쟁할 뿐 아이들에게 도덕이나 책임의식, 사회봉사과 같은 개념에 대해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래 세대들은 정말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그러니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강도나 나쁜 일

을 한 아이에게 잘못을 일깨우려면 그 전에 자신을 한 번 되돌아 봐야 합니다. ‘부모, 어른으로서 우리는 정말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하고 말이지요. 아마도 스스로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우리 탓이 아닙니다. 앞 세대들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세대부터 시작하여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어서 우리 자신과 아이들을 가르쳐 다른 길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나빠질 것입니다. 나쁜 아이들은 날 때부터 나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쁜 아이는 없습니다.

미국에는 젊은 살인범이나 강도범을 위한 전문적인 어떤 감옥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는 그런 교도소가 많이 있지만, 이 교도소는 특이하게도 그 안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곳이지요. 연구에서는 폭력을 저질러 징역을 살았던 사람들도 풀려나면 대부분 실수를 반복한다



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특별한 감옥에서는 색다른 시스템을 도입해 젊은 죄수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들이 했던 행동들을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해시킵니다. 통계로는 160명의 젊은 살인범들 가운데 그 교도소에서 출감한 후 딱 한 사람만 재범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재소자들은 외면의 차갑고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가면을 벗겨 자신의 양심과 대면시키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재소자들은 그들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듯이 다른 사람의 삶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또한 피해자의 입장을 연기하며 피해자의 고통과 그 친지, 아이, 친구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이런 교육을 받은 후 울음을 터뜨리고 진심으로 참회하게 되어 석방된 후에도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재소자들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또 자신의 양심과 대면하지 않은 채 계속 냉혈한의 가면을 쓰고 자기 내면의 느낌을 무시한다면, 석방된 후에도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에겐 살인이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 사람을 물건 정도로 생각하며 사람의 생명이 아주 고귀한 것이란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 피해자의 심정이나 그 친척 친구들의 감정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식의 재소자 교화방법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나쁜 아이들이나 죄수들은 정말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은 대부분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어머니가 마약 중독자였다거나 계부가 도박이나 술에 중독되어 그들을 자주 때렸다면 하는 것

이지요. 그런 가정 환경은 아이들의 비행을 조장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억울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터트리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이 감옥의 교육 시스템 역시 재소자들에게 이런 배경과 직접 대면시킵니다. 재소자들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원한을 터트리지 말도록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 무고한 사람들 역시 어느 순간에는 그들과 같은 처지에 있게 되고 그들의 가정환경 또한 그들과 같아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죄수들의 각기 다른 가정 환경에 근거해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을 가르친다면 아주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 감옥에서 석방된 사람들은 모두 160명 중 단 한 사람만 재범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도소에서는 오직 이런 종류의 죄수들을 24명만 받아 교육시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도 돌봐야 할 아이가 몇 명밖에 되지 않으니, 그들이 커서 사회에 큰 부담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도덕의 기초 역시 어릴 때부터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서는 무슨 일이든 굳은 결심으로 정확하고 실수 없이 해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스스로 수행해야 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아이들을 잘 돌보고 가르치고 수행의 이로움을 알려 줘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모로서의 의무가 아닌, 이 나라 모든 국민의 그리고 온 세상 모든 형제자매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21세기가 영광의 시대가 되어 모든 가정 다 수행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성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의 노력이 따라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중 박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칭하이 무상사/ 1998. 5. 23. 멕시코 멕시코시티 (원문 영어)

만약 각국 정부나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사랑의 힘을 알게 된다면 결코 전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만으로도 적을 섬멸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저 적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들이 항복해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무기를 버리고 여러분에게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적을 사랑하면 스스로에게 평화가 오기 때문이지요.

적과 화해하라

칭하이 무상사/ 1991. 2. 17. 미국 버지니아 (원문 영어)

전쟁에서 옳고 그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양쪽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적에게도 영혼과 감정, 지성, 동정심, 이해심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단지 같이 앉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친구로 사귀려고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적과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나 대단치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문화의 질을 높이자

청하이 무상사/ 1988. 11. 17. 포모사 타이베이 (원문 중국어)

질문: 스승님, 저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스승님의 책을 읽고 난 뒤, 학교공부로는 생사해탈의 방법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의 교육적 가치를 부정해야 합니까?

스승님: 아니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렇게 유창하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공부는 유용합니다. 단지 오늘날 교육체계에는 정신 방면의 과정이 빠져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다지 유용하지 않은 것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유익한 도덕교육을 실시하지 않지요. 많은 국가의 교육이 졸업장만을 중시해 학생들은 졸업장을 따기 위해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공부해야 합니다. 때로는 밤에 잠도 자지 못하지요. 하루 종일 학교에 있느라 부모와 있을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졸업한 후에는 사실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대부분 쓸모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가엾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이런 식입니다. 나는 많은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보다 나은 교육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육은 좀더 자연스럽고 자유로우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학교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도의 관음법문 종파의 경우는 자녀들을 직접 가르칩니다. 그들은 수학과 과학, 음악, 도덕, 고대 경전, 영적 지식, 부모공경 등과 같은 아이들에게 유용한 과목을 선정합니다. 이런 유용한 과목들 외에도 아이들에게 명상과 채식은 가르치지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매우 올바르게 행동하고 자라서는 국가에 큰 보탬이 됩니다. 사회에서도 매우 도덕적인 사람들이 되겠지요. 오직 소수의 국가만이 이런 모범을 따르고 있으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인도에서도 이런 학교가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최고의 대학

청하이 무상사/ 1989. 4. 21. 포모사 타이베이 (원문 중국어)

질문: 스승님, 스승님은 가장 우수하고 도덕적인 학생들을 키워내기 위해 대학을 세울 생각은 없으신가요?

스승님: 난 이미 대학을 세웠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관음법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중 박수) 우리 제자들은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우수합니다. 그들은 도박이나 담배도 하지 않고 거짓말이나 간음, 훔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나 동물도 죽이지 않지요. 모두 채식을 하고 매일 내면의 지혜를 찾기 위해 명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도덕입니다! (대중 박수) 그렇습니다! 우리 관음법문이야말로 최고의 대학입니다.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청하이 무상사/ 1988. 12. 1. 포모사 평통 (원문 중국어)

질문: 존경하는 스승님, 어떻게 하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아이들이 온순하게 변해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 일체의 의심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스승님: 그건 서로의 인과에 달렸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원래 착하지만 밖에 있으면서 그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사회 환경은 아이들에게 그리 좋지 않습니다. 사방에 폭력적인 영화나 포르노 포스터가 있고, 이런 포스터와 영화는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학교 수업에는 도덕 과목이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변화가 생겨 정부에서 교육 과정 중에 이 과목들을 적용시킬지 모르겠군요. 날마다 아이들에게 도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매일 30분씩 명상을 시키면 아이들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인도의 교육 시스템에는 이것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서양의 대학들도 이 과목을 추가한 것 같습니다. 그곳 학생들은 매일 30분씩 명상하는데, 그런 학생들이 더 총명하고 마음이 안정되며 교사에 대한 태도도 나아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변하길 원한다면, 바깥이 아닌 안에서부터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협조해서 개개인이 자신의 인격을 잘 돌봐야 합니다. 부모 역시 책임이 있으므로, 아이들에게만 변하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부모 자신도 변해야만 합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다 이미 세상을 떠난 어떤 스승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자신의 스승에게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는 서너 살이 되었을 때부터 부모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명상하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명상하는 법도 몰랐지만 그래도 같이 앉아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명상하는 법을 익혀 매일 부모님과 함께 일어나 같이 명상했던 겁니다. 그는 또한 매일 많은 도덕적인 사람들이 그의 부모를 방문하고 많은 수행자들이 부모와 함께 명상하는 것을 봤으며, 부모가 단체명상에 오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봐주는 모습도 봤습니다. 매일 밤이나 일요일마다 그의 부모님은 가족들에게 경전이나 도덕에 관련된 이야기, 또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읽어주곤 했으며, 다 같이 오디오 테이프를 듣기도 했습니다. 테이프를 다 듣고 난 뒤에는 함께 명상을 했지요. 그는 어려서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가 성장한 후 인도에서 유명한 스승이 된 것도 당연합니다. 그는 아직도 국제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만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른들도 어떤 때는 실수를 하니까요. 우리가 입는 옷이 고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성품이나 도덕심이 훌륭하거나 깊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을 교

육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근본적이며 가

장 중요한 선생님이니가요. 그렇지 않나요? (대중 박수)



축복 음식 잡기를 통한 깨달음

포모사 시후 장주

1998년 5월, 어머니날 바로 전, 한국 영동센터에서 국제 선오가 열렸을 때 스승님께서는 자비롭게도 모든 관음사자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오랫동안 스승님을 뵙지 못한 우리들은 모두 기쁨에 들떴고, 스승님 또한 우리의 갈망을 아시고 강연 후 우리를 자주 만나주셨다. 다정하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면서 우리가 외국에서 일하면서 늘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묻곤 하셨다. 스승님은 갖가지 방식으로 당신의 사랑을 전하시며 우리의 갈망을 충족시켜 주셨다. 우리들은 복 많은 아이들처럼 스승님의 온화한 사랑 속에 취했다.

그 잊지 못할 순간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춤과 가피물 잡기였다. 이전에도 우리를 만나실 때면, 스승님께서 가피물을 던져주셨다. 하지만 때로는 나누어 가지도록 보내시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대부분 직접 던져주셔서 다른 동수들과 나눌 필요도 없이 잡는 사람이 임자였다. 모두들 온 신경이 스승님 손에서 쏟아

져 나오는 가피물에만 간 채 열정적으로 ‘몸을 던졌’기 때문에 이 게임은 오래지 않아 끝이 났다.

가피물이 던져지자마자 우리는 늑대처럼 달려들어 낚아채고 움켜잡고 뛰어올랐다. 부스러기조차 남지 않았다. 우리들의 행동은 매우 민첩하고 정확했으며, 예의나 체면 같은 것은 머리 속에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잠시라도 꾸물거리거나 한눈을 팔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으니까!

‘게임’이 끝난 후 스승님께서 ‘트로피’의 개수를 세고 있는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셨다. 가장 많이 받진 못했지만 나는 아주 흡족했다. 가피물 잡기에 집중할 때, 나의 집중력은 온갖 잡념과 산란함, 편견들을 가볍게 뛰어넘고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완전히 동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스승님과 하나되는 느낌을 강렬히 받았는데, 그건 정말이지 천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서로 사랑의 손을 꼭 잡고

어머니날 공연이 끝난 후 이틀째 되던 날이 스승님의 진짜 생신이었다. 스승님께서 뭘 하고 싶은지 물으시기에 우리는 스승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했다. 스승님이 흔쾌히 승낙하시자 우리는 무척 행복했다. 선이 끝난 후 센터에 계속 남아있던 몇몇 동수들도 함께 합세해 한국 동수들이 먼저 아름다운 노래

를 몇 곡 불렀는데, 목소리가 너무 감미롭고 구성져 전문가 수준이었다. 연습할 시간이 없었던 터라 우리들의 합창은 엉망이었다. 당황하는 우리를 위해 스승님은 서둘러 단상에서 내려오셔서 대중들과 함께 ‘어린양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네’를 부르셨다. 스승님은 그곳을 한 바퀴 둘러보신 후 다시 자리로 올라가서 쿠기

를 드시며 우리와 함께 담소를 나누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청곡도 주문하셨는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스승님이 요청하신 그 어떤 곡도 잘 소화해낼 수 있었다.

포모사 민속 음악을 몇 곡 부르자 스승님은 우리에게 음악에 맞춰 춤을 추라고 하셨다. 농담하시는 걸로 생각했는데, 스승님은 계속 집요하게 요구하시며 어서 춤추지 않으면 가버리겠다고까지 하셨다. 스승님과 함께 있고 싶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있는 용기를 모두 끄집어내 춤을 쳤다. 춤을 잘 못 추는 동수들은 내면의 스승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미처 준비할 틈이 없어 관음보를 즉석 소품으로 써서 어떤 이는 머리에 두르고 어떤 이는 허리에 묶어 춤을 쳤다.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 리듬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비록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우리 움직임은 훌륭했고 박자가 적절 맞았다. 어떤 동수들은 치

마가 너무 길어 춤추면서 계속 밝히는 바람에 스승님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날 저녁 스승님은 정말 즐거워하셨다. 노래와 춤으로 사제지간의 사랑이 서로 엮이며 분위기는 최고조에 다다랐다. 우리에게엔 스승님을 기쁘게 해드리 자리에 머무시도록 해야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 나는 자신을 완전히 잊고 머리를 비우면서 스승님의 사랑과 일체가 되는 축복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었다.

스승님과 보낸 시간은 그 어느 때고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하다. 그 선을 마치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자신의 임무를 계속했다. 행복한 순간은 찰나에 지나갔지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스승님의 감미로운 사랑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 가끔씩 그날 불렀던 민속음악의 가락이 귓가에 들려온다. “서로 사랑의 손을 잡고 ……”.”

당신의 참 사랑에 감싸여

제발 말씀해주세요
왜 이토록 당신을 그리워하는지.....
우리는 아직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곧 다시 만나길 갈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울고
당신 때문에 웃습니다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이 미소지를 수만 있다면
난 그 어떤 일도 할 겁니다
당신이 어떤 옷을 입든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당신의 깊은 사랑에 감싸여 있으면 자랑스러울 뿐...
당신은 신이 제게 주신 최고의 은총이시며
당신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지요

주: 한국에 계시는 동안 스승님은 사형 사저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영적 진보를 베푸셨다. 지금은 서로 떨어져 있어 함께 했던 너무나 짧았던 그 순간이 마치 꿈결같이 느껴진다. 스승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 시를 쓰게 되었다.

유럽 소식

영혼과 문화의 대화합 - 2001 유럽 선오

[부다페스트] 8월은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 한 해의 힘들었던 일을 떠나 일광욕을 즐기며 쌀쌀한 가을과 겨울을 지낼 에너지를 충전하는 휴가철이다. 그러니 제 5회 전 유럽 선을 열고 또한 신의 품속에서 그 충만한 사랑을 즐기기에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어디 있겠는가?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유럽 16개국 200여 명의 사형사저들은 동유럽에 위치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부근의 한 캠프장에서 선오 행사를 치렀다. 이번 행사는 동유럽에서 열리는 첫 유럽 선이었는데, 동유럽 동수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참석했다. 참가자들 중에는 1999년 스승님의 순회 강연이 열렸던 불가리아와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포르투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스웨덴 등지에서 온 입문자들이 많았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참석자들로 언어는 달랐지만, 분위기는 아주 화목했다.

어떤 동수들은 이 선 장소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했는데, 포르투갈의 한 사형은 교통비가 없어 선 장소까지 4일 동안 계속 차를 세워 타고 와야 했다. 그는 오는 동안 줄곧 5불을 외었는데, 스승님은 그의 여행을 완벽히 안내해 놓으셨다. 그가 오면서 여러 대의 트럭을 갈아타는 동안, 한 트럭에서 내려 다른 트럭을 타려고 할 때면 그가 원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의 트럭을 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여행 내내 스승님의 배려와 불가사의한 안내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이 뭉클했었다.

스승님께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즐거운 선이 되기를 바란다는 특별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스승님의 사랑 어린 에너지가 선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강렬하게 느껴졌다. 스승님의 축복 덕분에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마치 스승님의 힘이 아주 사소한 모든 것까지 완벽하게 돌보시는 듯했다. 많은 동수들은 스승님이 함께 하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 명상 시간에는 특히 더욱 강렬했다. 전에 한번도 선에 참가한 적이 없는 새 입문자들은 단체의 힘을 얻고

명상수행에 많은 진전을 보였다. 전에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진보에 매우 놀라워했다. 이번 선에 참가한 15명의 폴란드 동수들은 경제적인 사정이나 비자 문제로 평소 국제선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특히 이번 기회를 소중히 여겼다.

5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선의 마지막 명상 시간 중에는 유난히 강한 돌풍이 불었는데, 주변 나무들이 동수들에게 작별인사를 하면서 또한 좋은 자장을 만들어주신 스승님의 힘에 감사하듯 고개를 숙였다. 캠프장이 있는 주변에는 말과 거위, 염소, 당나귀, 고양이, 개 등 많은 동물들이 있었다. 처음에는 꽤 시끄럽고 부산하던 그 동물들도 선이 끝날 무렵에는 아주 차분하고 조용해졌다.

마지막 명상 시간이 끝나자 명상홀이었던 막사는 오색 풍선과 리본으로 꾸며진 파티장으로 변했고, 오락 공연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동수들의 미소 띤 얼굴에서는 곧 커다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공연은 전통 인도 춤에서 클래식 발레, 현대무용에서 감각적인 디스코까지 다양한 문화성을 드러냈고 관객들은 여러 나라 동수들의 노래 공연에 흥겹게 참여하기도 했다. 공연이 끝날 무렵에는 열정적인 동수들이 유쾌한 분위기에 휩싸여 자발적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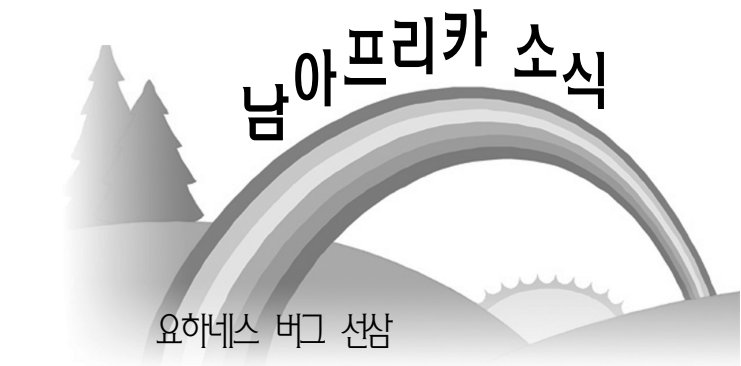
선이 끝난 후에도 캠프장에서는 여전히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졌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이번 선이 매우 훌륭했고 고양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다음에 더 자주 유럽 선을 개최하길 희망했다.

[요하네스버그] 7월 초 개최하기로 한 선삼 날짜가 다가오자 남아프리카 동수들은 모두 시끌벅적한 일상생활과 걱정에서 벗어나 잠시라도 스승님의 축복 속에 잠길 수 있다는 희망에 흥분되기 시작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평화롭고 비밀스런 선 장소는 냇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 더욱 상쾌했다. 선 장소를 선정하기로 한 사형은 마땅한 장소를 찾느라 먼지가 날리는 길을 헤매다 겨우 스승님의 안내로 이곳을 찾아내게 되었다.

케이프타운과 더반, 요하네스버그에서 온 동수들이 성공적인 선을 다짐하며 함께 일을 분담했다. 우리는 이번 선으로 응집된 에너지가 아프리카 정상에서 흘러나와 이 아름다운 아프리카 대륙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고양시켜주길 기원했다. 더반 동수들은 수많은 콩고 난민 형제들이 입문을 기다리

[홍콩] 홍콩 동수들은 올해에도 컨벤션센터에서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연례 홍콩 도서전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스승님의 축복과 지난 경험을 통해 금년 전시회 준비와 진행은 작년보다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전시회 기간 동안 동수들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전단지를 나눠 주느라 바빴다. 올해의 우리 부스의 주제로는 주요한 사회적 관심사인 환경보호를 선택하고 이전에 나온 뉴스잡지들의 '환경보호 특집' 기사를 전단지에 실었는데, 방문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전단지를 읽고 난 후 환경보호와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질문했으며, 어떤



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는데, 우리는 이것이 전쟁으로 인한 세상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스승님의 커다란 축복임을 알 수 있었다.

선삼 동안 우리는 내적으로는 스승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한편, 외적으로는 맛있는 음악과 즐거운 시간을 누렸고, 또한 소박하고 간단한 선 생활을 통해 살아있는 스승이 주신 내면의 보물을 가슴 깊이 체험할 수 있었다. 많은 아프리카 동수들은 평온하고 단순한 공동체에서 스승님의 인도를 받으며 여생을 살 수 있길 희망했다. 우리가 선을 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선의 첫날 감로비를 내려 이곳을 정화하고 우리에게 스승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방문객들은 특히 스승님의 출판물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또 방편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방문객들 중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스승님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스승님에 대해 큰 존경심을 표하기도 했다. 동수들은 사랑하는 스승님과 그렇게 많은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기뻐했다.

미국 소식

스승님의 무한한 힘이 효과적으로 발휘되다

[로스앤젤레스] 2001년 8월 18일, LA 동수들은 로스앤젤레스의 동부인 몬트리 파크의 중국인 거주지역에서 비디오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선전이 미미했음에도 중국인 지역의 브루 그마이어 기념 도서관 프렌즈 룸은 관심있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 테이프 ‘어린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자’가 상영되는 동안에도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동수들은 강연장 뒤편 벽에 기대서 있어야 했다.



도서관의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사장 준비 작업과 청소 시간을 제외한 2시간 반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어려웠는데도 참석자들은 스승님의 말씀에 매우 만족해하고 스승님의 힘에 축복 받은 듯 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남아 방법법을 배웠으며 입문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한 남자는 우리가 자리를 떠나자 문밖까지 따라나와 “입문식이 있으면 꼭 제게 알려주십시오”라며 간곡히 부탁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수차례 성공적인 비디오 세미나를 마친 우리 LA 동수들은 행사 준비와 마무리 청소 작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마치게 되었으며 모든 일들도 하나 어그러짐 없이 잘 진행되었다. 이번 흥법 활동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스승님의 은총 속에서 최소한의 비용과 선전으로 이 유구한 영적 역사와 진리에 대한 갈망이 높은 지역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소식

세 번의 비디오 세미나로 영성의 씨앗을 심다

[아르헨티나]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에 고취된 아르헨티나 동수들은 8월에 세 차례의 비디오 세미나를 열어 새로운 진리의 씨앗을 심었다.

첫 세미나는 라플라타 시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는 그 지역의 한 신실한 구도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그녀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스승님의 전단지를 보고 스승님의 가르침에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라플라타의 한 장소를 세미나 장소로 제공해 많은 친구들을 초대했던 것이다. 참석자 중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른 명상법과 치유법문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다른 사람의 인과에 개입하지 말

아야 하는 중요성을 이해한 후 기꺼이 방편법을 배웠다.

두 번째 세미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유키오 미시마 문화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를 성황리에 마친 동수들은 어린이날을 위한 특별행사를 마련해 다음 일요일 단체명상이 끝난 후 사탕과 초콜릿, 장난감을 담은 주머니를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나눠 주었다. 사형사자들은 기쁨으로 빛나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고 깊이 감동 받았다. 또한 홍수와 추운 날씨로 고생한 아르헨티나 남부지방 사람들을 위해 적십자에 이불을 전달했다.

세 번째 세미나는 8월 26일 성 마틴 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주

요 신문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선전되었으며, 수천 장의 전단지가 배포되었다. 유키오 마시마 문화센터 주임인 오스발도 모로 씨가 그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입문자들과 30분간 인터뷰를 진행했고, 현재 방편법을 수행하는 예비 입문자인 모로 씨는 방송을 통해 수행의 이로움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수백 명이 참석해 스승님의 비디오를 주의깊게 시청했으며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편법을 신청했다.

이 땅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사심없는 봉사를 통해 스승님의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중들이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열심히 시청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입문자들이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날 선물을 나눠주고 있다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가 공익단체 최우수 인기상을 수상하고 타이난 부시장으로부터 상패를 받다



동수들의 아름다운 춤 공연



포모사 소식

2001 유선방송 박람회

[타이난] 8월 26일, 행정원 정보청과 타이난 시정부, 두 개의 유선방송국의 주관으로 유선방송 공익보도 박람회가 타이난 예술 문화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 박람회에는 많은 일반인들과 다양한 공익단체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참가했으며 행사장에는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았다.

박람회는 오전 동수들의 화려한 민속춤 공연과 함께 개장했는데, 이 박람회의 십여 개의 전시대 중에서도 동수들이 마련한 두 칸의 전시대는 눈에 띄었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출판물과 예술 창작품을 분리 진열하는 것 외에도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최근 자선활동에 관한 자세한 전시물을 게시했다. 동시에 스승님의 위성 TV 프로그램을 상영했



청하이무상사 국제 협회는 여러 해에 걸쳐 공영서비스 활동에 중점을 둔 전시회에 참가했다.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을 보면서 동수들이 정성껏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있는 방문객들



다. 동수들은 또한 채식 시식회를 열어 미리 준비한 다양하고 맛있는 채식 음식들을 방문객들에게 조금씩 맛보이자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다른 한편의 채식 정보 부스에서는 맛있는 요리를 견본으로 준비해 방문객들에게 채식에 대한 관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박람회는 인기투표로 그 절정에 달했다. 방문객들은 길게 줄지어 서서 자신이 선호하는 공익단체에 투표했다. 영광스럽게도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가 최고 인기 단체로 뽑혀 타이난 부시장으로부터 인증서와 상패를 받았다. 그날 활동을 종합해 보면, 타이난 동수들의 뛰어난 전시대 진열과 생동감 넘치는 무대공연이 많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것이다.

해변청소

[타이난] 2001년 8월 18일, 타이난센터 동수들은 타이난 골든 코스트에서 환경보호 청소활동을 전개했다. 그 날 특히 고양된 기분으로 청소작업에 임했던 동수들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변을 보전하는 외적인 노력과 관심 어린 행동 또한 세상을 위하는 일임을 깊이 깨달았다. 그래서 정말 즐거운 일이었다!

Quan Yin Web Sites

<http://www.smchbooks.com/> (포모사-중국어, 영어, SM 경서조)
<http://www.godsimmediatecontact.com/> (싱가포르-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한국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 (일본-일본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id/> (인도-인도네시아어)
<http://members.mweb.co.th/godsdirectcontact/> (태국-태국어)
<http://www.spiritual-discovery.org/> (미국-중국어 번체, 간체,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 (미국-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간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spiritweb.org/Spirit/media.html?who=Suma%20Ching%20Hai> (미국-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 (미국-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video/>
 (미국-Windows Media Video & Real Video; 다국어 지원)
<http://www.godsimmediatecontact.tripod.com/> (미국-영어)
<http://www.contactdirectavecdieu.org/> (프랑스-프랑스어)
<http://godsdirectcontact.rma.cz/> (체코 공화국-체코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 (캐나다 - Real Audio 지원, 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de/> (독일-독일어)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 (오스트리아-독일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uk/> (영국-페르시아어)
http://www.extra.hu/kozvetlen_kapcsolat Istennel (헝가리-헝가리어)
<http://Godsdirectcontact.bizland.com/> (스웨덴-스웨덴어)
http://www.geocities.com/godsdirectcontact_2000 (폴란드-폴란드어, 영어, 어울락어)
<http://www.contactodiretocomdeus.com.br/> (브라질-포르투갈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IhavecometotakeyouHome>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책 주문-영어)

이메일로 잡지를 받아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service/service.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rvice/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service/service.htm>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glish/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spanish/service.htm> (스페인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fan/service.htm> (중국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jian/service.htm> (중국어 간체)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50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publication/sample/sample.htm>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아프리카

★ 베닌	센터	229-303-982 smbenin@yahoo.fr
★ 카메룬	센터	237-865026 smcameroon@yahoo.com
★ 가나	센터	233-27-607-528 smghanac@yahoo.com
★ 케냐	센터	254-55-00-46 atmoske@yahoo.com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 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더반	Mr. & Mrs. Suresh Patel	27-31-262-5111 surindie@intekom.co.za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11-880-0349 ghvosloo@mweb.co.za
	Mr. Gilbert Kamgain	27-82-754-3840 gkamgain@yahoo.com
	Mrs. Tracey Ho	27-11-6402085 sahjbcenter@pchome.com.tw
★ 토고	팔리메 센터	228 410 948
	로메 센터	228 222864 smtogo@yahoo.com
	Mr. David Chine	228 215551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lukiise@yahoo.com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08-1758 smmaurice@email.com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essence@intnet.mu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mak@sminter.com.ar
★ 볼리비아	산타 크루즈	Mrs. Adalina da graca Munoz 591-337-2039 adamun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브라질	벨렘	Mr. Wei Cheng Wu 55-91-223-9414
	레시페	Ms. Salma Casierra Alvarez 55-81-3262912
	상 파울루	센터 55-11-5579-1180/3884-3155 연락인 사무실 55-11-227-4690/228-7029 brcenter@hotmail.com
★ 칠레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295992 ezapata@entelchile.net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연락인 사무실	56-2-6389229
★ 콜롬비아	보고타	Mr. & Mrs. Jose Guzman Alonso 57-1-2261245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Ms. Laura Chen 506-387-4516 laurachenr@hotmail.com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r.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과나후화토	Mr. & Mrs. Jose Luis Sanchez Vargas	52-4-7436120
멕시코칼리	Ms. Sylvia Lagrange	52-65-684575 quanyin@telnor.net
멕시코DF	센터	52-5-752-7472/5639-3506 kamel@avantel.net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852-1256 tecenter@ragnatela.net.mx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dl Suffo	52-8-3778387 mttycenter@starmedia.com

★ 니카라과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roxanabett@hotmail.com
-----	--------------------------------	--

★ 파나마

센터	507-236-7495
Ms. Maritza E.R. de Leone	507-260-5021 mrleone@hotmail.com

★ 파라과이

C.D. 이스트	Mr. Zhi-Lu Tsao	595-61-502034 jscmike@fnn.net
----------	-----------------	----------------------------------

★ 페루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centro@yahoo.com
리마	센터	51-1-4716472 lvalencia@terra.com.pe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chinghailimaperu@hotmail.com
	Mr. Victor Carrera	51-1-2657429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tu@yahoo.es
트루히요	Mr. Luis Rebaza	51-44-260871 larv@terra.com.pe

★ 살바도르

산 살바도르	Mr. Manuel Menjivar	503-216-9413 quijano_manuel@yahoo.es
--------	---------------------	---

★ 트리니다드 아이랜드

Mr. Ray Alibocus	1-868-637-1054 alibocus@tstt.net.tt
------------------	--

★ 캐나다

에드몬톤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dangvansang@hotmail.com
킹스턴	Mr. Quang Thanh Le	1-613-384-3295
런던	센터	1-519-438-3702 unisel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Ms. Euchariste Pierre	1-514-277-2717 p_euchariste1@sympatico.ca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nguyenthehung40@hotmail.com
	Mr. & Mrs. Nai-Chi Hsu	1-450-647-4871
오타와	Mr. Le Lam	1-613-260-1698 lam.le-quanyin@home.com
	Mr. Armand Laplante	1-613-745-6050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Ms. Diep Hoa	1-905-897-0650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home.com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aicompro.com
	Ms. Sheila Coodin	1-604-739-6758 sheila@prismnet.bc.ca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 미국

애리조나 :	센터	1-623-581-0725 ArizonaCtr@aol.com
--------	----	--------------------------------------



아칸소 :	Mr. & Mrs. Kenny Ngo Mr. Robert Jeffreys	1-602-404-5341 1-501-253-8287 bobj@arkansas.net		Mr. Robert Ectman	1-301-972-5654 bce94@hotmail.com
캘리포니아 :			미시간 :	Ms. Susan Manturuk	1-616-588-6341 manturuk@torchlake.com
*로스앤젤레스:			미네소타 :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001@juno.com
	센터	1-909-674-7814	미주리 :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lin54@hotmail.com	*제퍼슨	Ms. Mary E. Steck	1-573-761-9969 MSteck5208@aol.com
	Mr. & Mrs. Dong Phung	1-626-284-9994 SanGabriel99@hotmail.com	*플라	Mr. Genda Chen	1-573-368-2679 gchen@umr.edu
	Ms. Tina Polny	1-714-960-4518/960-4568 qin-na.polny@mindspring.com	네브라스카 :	Ms. Celine Robertson	1-402-483-4067 ctrobert@yoda.unl.edu
*새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Saccenter.ca@usa.com	네바다 :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라스베가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1-973-209-1651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뉴저지 :	센터	c_newjersey@yahoo.com
	Mr. & Mrs. Tang Thi	1-619-268-8651		Mr. & Mrs. Nghiem The Trung	1-609-667-3829 albert_nghiem@hotmail.com
*샌프란시스코				Mr. Chang-Sheng Chou	1-973-335-5336 JohnChou@ymusa.com
	센터	KHOALUONG@aol.com	뉴멕시코 :	Mr. & Mrs. Nawarskas	1-505-822-1560 anawarskas@hotmail.com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뉴욕 :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fcenter@hotmail.com		Mr. & Mrs. Zhihua Tung	1-718-837-4884 dong@phys.columbia.edu
*산 호세	Ms. Sophie Lapaire	1-650-988-6500 Sophie.Lapaire@eng.sun.com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716-256-3961 success@coachdebra.com
	Mr. & Mrs. Edgar Shyuan	1-408-463-0297 Edgar-Teresa@worldnet.att.net	노스캐롤라이나 :		
	Mr. Loc Petrus	1-510-276-4631 petrusl2k@earthlink.net	오하이오 :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1-513-887-8597
	Mr. Jim Su	1-408-253-8516 sumajim@aol.com		Mr. & Mrs. Vu Van Phuong	von@swoca.net
	Mr. James Kiet Le	1-408-262-8233 James_Le@adaptec.com		Mr. Gilbert Rivera	1-513-381-4554 wisdmeye@aol.com
콜로라도 :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torahi@juno.com	오�클라호마 :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aol.com
플로리다 :			오리건 :		
*케이프 코랄			*포틀랜드	Ms. Vera Looijenga	1-503-234-1416
	Mr. & Mrs. Thai Dinh Nguyen	1-941-458-2639			
	Ms. Trina L. Stokes	1-941-482-7542 tls77@aol.com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center@hotmail.com
*올랜드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ekalbekim@yahoo.com		Mr. & Mrs. Alistar Phuoc Minh Pham	1-503-642-1252
조지아:	센터/ Bhiksuni Chan Mo	1-770-936-9926 GeorgiaCnt@aol.com	펜실베이니아 :	Mr. & Mrs. Diep Tam Nguyen	1-610-626-5546 Diep.Ngu.PA@juno.com
	Mr. James Collins	1-770-934-2098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텍사스 :		
하와이 :	센터	1-808-735-9180 hawaiictr@hotmail.com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wul@austin.rr.com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6059 DorothySakata@aol.com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ongdean@yahoo.com
일리노이 :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lamtran@hotmail.com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Mr. & Mrs. Sang-Yoon Lee	1-773-261-4033 ilovesuma@hotmail.com		Mr. Tim Mecha	1-972-395-0225 mechat@email.msn.com
인디애나 :	Mr. & Mrs. Duc Vu	1-317-293-5303 duchanh@aol.com		Mr. Weidong Duan	1-214-528-9178 water96@yahoo.com
캔터키 :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NGUYEN@MAIL.STATE.KY.US		Mr. Jimmy Nguyen	1-972-206-2042 DallasCenter@hotmail.com
루이지애나 :	Mrs. Jon L Fontenot	1-504-483-3234 jfontenot@hotmail.com	*휴스턴	센터	1-281-893-8300 1-713-6652659
메사추세츠 :				Ms. Carolyn Adamson	caroltex@interserv.com
*보스턴	센터	1-978-436-9982 shinemound@earthlink.net		Mr. & Mrs. Charles Le Nguyen	1-281-370-3898 DNgyuen376@aol.com
	Ms. Gan Mai-Ky	1-508-791-7316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obert.Yuan@Compaq.com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샌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6088
메릴랜드 :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HughMDCenter@yahoo.com			



버지니아 : 센터 1-703-941-0067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hy@dotplanet.com

*버지니아 비치
Mr. David Young 1-757-588-8468
davidkyoung@hotmail.com

워싱턴 :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007@hotmail.com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요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c@yahoo.com

★ 푸에르토리코
카뮈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s 1-787-262-1874
disnalda@caribe.net
샌주안 Ms. Shanti Ragyi 1-787-723-7138
shantiragyi@hotmail.com

아시아

★ 아르메니아 Mr. Armen Hovhannisyan 374-1-227303
armenhovhannisyan@hotmail.com

★ 포모사
타이베이 센터 886-2-23757527
smchtpe@ms33.hinet.net

Mr. Chuan-Ping Yang 886-2-23756784
Mr. Chiu Min Fen 886-2-23890885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Mr. Chu Chen Pei 886-37-724726

까오슝 Mr. Fei Lung Wu 886-8-7211692
Mr. Yuan Hua Wu 886-8-7562020
★ 홍콩 센터 852-27495534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lovequanyin@hotmail.com

★ 인도
뭄바이 Mr. Suneel Ramaney 91-22-282-0190
trust_god@indiatimes.com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655-6741
★ 인도네시아
발리 센터 62-361-231-040
begodnow@yahoo.com

Mr. Agus Wibawa 62-81-855-8001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smch-jkt@dnet.net.id

Mr. Tai Eng Chew 62-21-6319061
Ms. Lie Ik Chin 62-21-6510218
financel@ueii.com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hai@cbn.net.id

Mr. I Ketut P.Swastika 62-21-7364470
수라마야 센터 62-31-5673084
ahimsasb@indosat.net.id
Mr. Harry 62-31-594-5868
harry_1@sby.dnet.net.id

마젤랑 Mr. Njo Kwat Gone 62-293-367-031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yudi_wartono@telkom.net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육야카르타 Mr. Augustinus 62-274-588-105
tadianingtyas@eudoramail.com

★ 일본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truelove@mth.biglobe.ne.jp

구마모토 Ms. Mochinaga Eiko 81-96-346-2928
genesis@mb.infobears.ne.jp

도쿄 Ms. Yukiko Sugihara 81-3-3307-1643
cal13840@pop07.odn.ne.jp
Mr. Yoshie Takeda 81-90-3963-0755
y-plus@f6.dion.ne.jp

★ 한국
출판사 02-2202-8090
chinghai@unitel.co.kr

서울 서울 센터 02-5772158
quanyim@unitel.co.kr

오종철 02-5755080
유태인 02-7953927
이지자 02-599-1701
부산 부산 센터 051-5819200
quanin@konet.net

송호준 051-9574552
황상원 051-8057283
이원석 051-8946645
전주 전주 센터 063-2747553

신현창 063-2545824
인천 인천 센터 032-2441250
이재문 032-244-1250
대구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김익현 053-6333346
한선희 053-7675338
차재현 053-8563849
대전 대전 센터 042-6254801
김수동 042-2547309

광주 광주 센터 062-5257607
조명대 062-9716559
jomd@hanmail.net

안동 안동 센터 054-8213043
김삼태 054-8734961
영동 영동 센터 054-5325821
houmri@unitel.co.kr

제주 제주 센터 064-996113
★ 마카오 센터 853-532231
macau_center@email.com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 말레이시아
알로르 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조호르 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3516075
supreme2@tm.net.my

칼라룸푸르 센터 60-3-9873904
klsch@tm.net.my
연락인 사무실 6012-259-5290
klgcp@hotmail.com

페낭 센터 60-4-228-5853
pgsmch@pd.jaring.my
Mr. & Mrs. Lin Wah Soon 60-4-6420370

★ 몽고
울란바토르 Mrs. Luvsan Tsengel 976-11-344604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31-21174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 네팔
카트만두 센터 977-1-254481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Mr. Ajay Shrestha 977-1-473558
ajaystha@hotmail.com
977-61-28144

chinghai2000pokhara@hotmail.com
Mr. Bishun Neupane 977-61-21201
neupanebishnu@hotmail.com

Mr. Shiva Bastola 977-61-28255
pokharacenter@hotmail.com
Mr. Raj Jumar Lama 977-61-31413

★ 필리핀 마닐라 센터 632-433-9248
manilach@hotmail.com



★ 싱가포르		센터	65-741-7001	★ 네덜란드			
		연락인 사무실	chinghai@singnet.com.sg	암스테르담	Mr. Nguyen Ngoc Trung	31-294-41-9783	
			65-846-9237			Vothuong5@cs.com	
★ 스리랑카					Mr. Marcel Mannaart	31-72-5070236	
콜롬보	Mrs. Suranganie Dayaratne	94-1-760927				m.mannaart@planet.nl	
		jean@sol.lk		★ 헝가리			
★ 태국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방콕	센터	662-674-2694				heaven.bud@mail.mata.vu	
		bkk_c@hotmail.com			Mr. Lux Tamas	36-309-611994	
	Ms. Laddawan Na Ranong	662-5914571			Ms. Dora Seres	36-1379-1924	
		edasnlad@samsorn.stou.ac.th		지울	Mr. Lehel Csaba	36-96-456-452	
	Mr. Wu Peir Yuan	66-1-8248294				clehel@freemail.hu	
치앙마이	센터	66-53-217080		★ 아일랜드			
	Ms. Siriwan Supatrchamnian	66-53-387126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핫아이	센터	66-74-368329-30(c/o 155)				berardleech@unison.ie	
콘캔	센터	66-43-261878		★ 노르웨이			
	Mr. Paisal Chuangcham	66-43-241718		오슬로	Mr. Nguyen Ngoc Tai	47-22-612939	
						tnguyen@c2i.net	
*** 유럽 ***				★ 폴란드			
★ 오스트리아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azak	48-091-4874953	
	비엔나 센터			바르샤바	Mrs. To Soszynska	48-22-6593897	
	Chinghai@A1.net					quanyin@home.pl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70535		로드츠	Ms. Lukaszewska Mariola	48-42-6860037	
	Mr. Shih-Tsung Lu	43-664-3909200				czakra@interia.pl	
		sound@gmx.at		★ 포르투갈			
★ 벨기에				리스본	Mr. Helder Hen Keon Kong	351-21-920-4118	
브뤼셀	Mr. Hugo Berton	32-1640-0377				lisbon_center@notmail.com	
		universal@planetinternet.be		★ 러시아			
★ 불가리아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Mr. Ruslan Staykov	3592-575358				boulgakov@tri-el.ru	
		oldruslan@yahoo.com		★ 슬로베니아			
★ 체코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프라하	센터	42-02-6136-3031				dbk@siol.net	
		prague-center@chinghai.cz		★ 스페인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마드리드	센터	34-91-5470366	
		Chinghai@chinghai.cz			Ms. Lidia Kong	34-91-7756670	
★ 그리스				말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	
아테네	Mr. Mr Eric Raza	30-01-6923-133		발렌시아	Ms. Xi-Chun Wang & Ms. Xin-Lan Yang	34-96-3336208	
		Razahidah@hotmail.com			채식 식당	34-96-3744361	
★ 크로아티아					Mr. Yu Xi-Qi	34-96-3726401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valenciachinghai@yahoo.es	
		zeljko@mindless.com		★ 스웨덴			
★ 덴마크				엔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 핀란드						hang.nguyen@spray.se	
헬싱키	Ms. Luong Hoang Hanh	358-9-8537455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hoanghanh.luong@luukku.com				widlund@hem.utfors.se	
	Ms. Anne Nystrom	358-9-793902		말뫼	Mr. & Mrs. John Wu	46-40-973452	
		anne.nystrom@iobox.fi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 프랑스						mats.gigard@telia.com	
파리	센터	33-1-4300-6282		옵살라	Ms. Premila Perera Ivarsson	46-18-302029	
	Ms. Lancelot Isabelle	33-1-40301174				premila-perera@pharmacog.uu.se	
		ilancelot@celestialfamily.net		★ 스위스			
	Ms. Ngo Thi Huong	33-1-424-31924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gefliu@yahoo.com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Ms. Klein Ursula	41-22-3691550	
★ 독일				★ 영국			
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스토크온트렌트	Mr. Janet Weller	44-1782-414989	
		berlincenter@hotmail.com				family@weller142.fsnet.co.uk	
	Mr. ChristianBastwoeste	49-30-3470-9262		런던	센터	44-208-3742743	
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5232-68564			연락인 사무실	44-207-4731421	
		49-174-5265242				pnl@matters19.freemove.co.uk	
		ngoc-thao.nguyen@gmx.de		서리	Mr. Hu Tchang Rong	44-1293-416698	
		dusseldorfcenter@hotmail.com				stmchwo@hotmail.com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 스코틀랜드			
		HamburgCenter@gmx.de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뮌헨	Ms. Kang Cheng	49-89-3616347				lillig@btinternet.com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글래스고	Mr. Robert Jackson	44-141-637-7255	
		ChingHai@aol.com				Robert.jackson@classicfm.net	



오세아니아

★ 호주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브리즈번 센터 617-3374-3339
 briscentre@hotmail.com
 Mr. Gerry Bisshop 617-3847-1646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ieng@dme.qld.gov.au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바이런 베이/노던 리버스
 Mr. & Mrs. Ray Dixon 612-6685-3248
 rayandjulie@linknet.com.au
 캔베라 Mr. & Mrs. Khanh Huu Hoang 612-6259-1993
 smcanbra@cyberone.com.au
 멜버른 센터 613-9890-0320
 Melbsmch@aol.com
 Mrs. Rosemary Nagtegaal 613-9585-7871
 Mr. Pham Van Bon 613-9470-4573
 Mr. Alan Khor 61-3-9857-4239

퍼스 센터 61-8-9242-1189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inet.net.au
 시드니 Mr. Ly Van Tri 61-8-9244-7661
 Mr. Eino Laidsaar 612-9477-5459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Mr. Hong Bo 61-2-97887588
 hongbo_huang@hotmail.com
 태즈메이아 Mr. Peter John Boatfield 61-3-62293878
 ★ 뉴질랜드
 오클랜드 Mr. Kym Anton Toia 649-419-4470
 nzanton@yahoo.com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xtra.co.nz
 Mrs. Chanwu Wong 649-266-6898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chaomim@hotmail.com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647-849-4442
 glenprime@hotmail.com
 타우랑가 Ms. Joy Daniels 647-544-5268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 비디오 테이프

이메일: art&spirituality@Godsdirectcontact.org
 팩스 : 1-413-751-0848(미국)

SM 경서조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 1-240-352-5643 / 886-943-802829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바랍니다)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 886-946-730699

LA센터 경서팀

이메일: vole@earthlink.net
 팩스 : 1-909-738-9992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ms34.hinet.net
 전화 : 886-2-87910860
 팩스 : 886-2-87911226

뉴스그룹

이메일: lovesrc@Godsdirectcontact.org
 팩스 : 1-801-7409196/ 886-946-728475

포모사 타이베이 창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 (886) 2-87873935
 팩스 : (886) 2-87870873

대한민국 창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unitel.co.kr
 전화 : (82) 2-2202-8090
 팩스 : (82) 2-2202-8091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 가능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대한민국 창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hounri@Kornet.co.kr
 전화 : (82) 54-532-5821
 팩스 : (82) 54-532-5822
 (천의, SM 보석, 해피요기, 만세등, 그림 ...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상주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강함과 부드러움

8월 SM천의 팀은 “강함과 부드러움”이란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고 해피요기 남성용 여름 의상을 선보여 일년 중 아버지의 계절인 이 시기를 경축하고 또한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스승님의 사랑과 은총을 전했다.



스승님이 디자인하신 남성용 여름 의상에는 간편하면서도 우아한 긴소매, 짧은 소매의 폴로 셔츠, 자유롭고 멋스런 긴 바지와 짧은 바지, 그에 걸맞은 화려하고 활동적인 꽃 문양 셔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독특한 스타일의 밝은 색 크루넥 (깃 없는 네크라인) 셔츠는 자연스러움과 생동감, 중후함이 느껴지는 폴 무늬의 긴 바지와 잘 어울리며, 강렬한 대조를 이루는 남성용 셔츠와 바지는 대체로 화려한 꽃무늬의 해피요기 속녀복과 재미있는 한 쌍을 이룬다. 이러한 특성은 남성들이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성품을 갖추도록 희망하신 스승님의 뜻이 잘 드러나 있다.

최신 만세등 - "5세계"

디자인 - 창하이 무상사

스승님이 최신 디자인하신 만세등 '5세계'는 5세계와 우주의 신비를 드러내는 아주 독특한 작품이다. 램프의 밑 부분에 새겨진 음양 양의 태극 문양은 음양의 속성을 가진 이 물질세계를 상징한다. 이 '5세계'의 곡선은 순차적으로 5세계에 이르도록 한다. 램프의 속 들어간 가운데 부분은 3세계를 뜻하며, 마치 수행 중 가장 뛰어넘기 힘든 부분을 상징하는 듯 하다.



깨달은 스승의 인도 없이는 삼계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려우며, 4세계를 통과해 우여곡절 끝에 해탈의 피안에 도달하는 건 더욱 말할 것 없다. 만세등 '5세계'는 일단 깨달은 스승에게 입문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면 이 영혼의 빛의 근원을 따라 빛의 바다인 5세계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진선미가 시후의 한자리에 화현하다

스승님의 풍부한 예술 재능으로 세상에 다양한 스타일의 예술 창작품들이 선보이게 되었다. 시후센터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스승님의 창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우아한 화랑을 개관해 스승님의 수많은 예술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무상예술 화원

시후의 한쪽, 예술 화원에서
무상 선경(仙境)의 수많은 보물들을 만나다

눈부신 빛의 바다를 이룬 만세등
바로 빛나는 지상천국이 아니던가?

예술 화랑은 그대로 풍경이 되고
벽은 곧 화랑이니
눈길 닿는 곳마다
모두 무상예술 뿐이로다

예술의 천국, 무상 화원이
성스런 사랑의 은총으로
여기 생겨났구나

